

양산시 하북면

신평마을 이야기



양산시 하북면

신평마을 이야기

목차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발간사	6	8. 보광중학교	80
들어가며: 신평마을 스케치	11	·보광중학교의 역사	82
소설가가 걸었던 신평마을<순채꽃이 이쁜 마을> 김가경 소설가		·배영태 교장 선생님	88
신평마을 이야기	27	9. 마을을 움직이는 동력	92
1. 당산나무	30	·마을 이장단	93
2. 통도아트센터	38	·새마을부녀회	102
3. 신평마을 경로잔치	40	·신평마을 청년회	106
4. 신평마을 만세 운동	42	·의용소방대	108
5. 신평시장	48	10. 통도사	111
·신평장을 지켜 온 제일 오래된 주민들	53	·통도사 창건 및 통도사 사명	115
·경순엄마 좌판 / 신평장날에만 나오시는 50년 된 장사꾼	54	·삼성 반월교	118
·신평양화점 / 48년 된 유일한 신평의 수제화 집	58	·가람각	119
·신평양화점 / 48년 된 유일한 신평의 수제화 집	62	·다보탑 벽화—견보탑품도단	120
6. 옛 신평거리	66	·반야용선도—용선점인도	121
·신평거리를 지켜 온 제일 오래된 주민들	69	·구룡지—통도사 창건설화	123
·비너스 / 신평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최초의 속옷가게 비너스	70	·달마도	125
·속미용실 / 신평마을에서 63년 된, 제일 오래된 가게	74	·호작도	126
7. 삼성전관	78	·대웅전과 금강계단—자비보탑	127
8. 보광중학교	80	·사리의 영이함—통도사사적기	132
·보광중학교의 역사	82	·산령각	132
·배영태 교장 선생님	88	·봉발탑	134
		·숯을삼문	136
		·호혈석—호압석	137
		·자장암의 금와보살	140

지도로 보는 신평마을

- 1. 당산나무
- 2. 통도아트센터
- 3. 신평시장
- 4. 경순엄마 좌판, 용현상회
- 5. 신평양화점
- 6. 비너스
- 7. 숙미용실
- 8. 보광중학교
- 9. 통도사 어린이집
- 10. 하북면 의용소방대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할 기회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김남룡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현대문명의 뿌리는 농경 사회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농촌사회의 역사와 전통문화는 우리 인류가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충분한 가치와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농촌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촌 마을 고유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생활상 등의 소중한 지역 자원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촌 사회가 서서히 소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입니다.

최근 우리 센터는 농촌 지역의 어느 마을에서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원로인 어르신께서 세상을 이별하면서 그분만이 지니셨던 아이덴티티 등 소중한 농촌 문화들이 계승되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른 농촌 마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지역 원로인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이 감소하여 결국 농촌 사회가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사라져 가는 농촌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할 뿐만 아니라, 기존 문헌에 수록되지 않은 마을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기 위한 기록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양산시 농촌 지역 마을들이 지닌 유·무형 자원들을 모아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양산시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마을의 체계적, 지속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지역 농촌 마을 주민들의 삶 속 이야기와 잊혀 가는 농촌 마을의 옛이야기를 기록화하는 책자를 지속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양산시 농촌 마을이 지닌 고유의 문화, 복지, 경관, 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발굴하고 재정립함으로써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역민에게 공유하고 확산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산시 마을 아카이빙 북 발간이 우리 양산시 농촌 지역 마을 발전에 주춧돌이 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지역 문화 자산이 되기를 기대해 보며, 아울러 이러한 전통적인 농촌 문화들이 대대손손 잘 계승되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김남룡(58) | 양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센터장

이 책이 나오기까지 발간에 힘써 주신 양산시 균형개발과와 하북면 신평마을 이장님들, 통도아트센터 김상철 사무국장님, 김상걸 전 양산시의회 이장님, 신충길 선생님을 비롯한 주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센터 연구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양산시와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우리의 농촌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참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양산시 농촌 활성화와 마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며: 신평마을 스케치
소설가가 걸었던
순채꽃이 피는 마을
: 김가경 소설가

① 영축산

비 소식에도 양산을 펼쳐야 할 만큼 햇살이 따가웠다. 신평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마을을 감싸고 있는 영축산이었다. 영축산(靈鷲山, 해발 1,082m)은 양산시 하북면과 원동면, 울주군 삼남면에 두루 걸쳐져 있다. 인도 동북부에도 같은 이름의 산이 있었다. 몇 년 전, 마가다국에 있는 영축산 정상, 비상하는 독수리 모양의 바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온 세계를 내려다보며 법화경을 설하신 곳까지 올랐던 기억이 새삼 떠올랐다. 힘이 들어서 구걸하는 소년과 함께 손을 잡고 올랐는데 그 산의 일부처럼 느껴져 오랫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그곳의 산세와 정기를 닮아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니 친근함과 반가움이 한층 더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통도사를 품고 있는 명산 끝자락으로 4개의 부락이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는데, 그 마을의 통칭이 신평마을이었다.

양산을 펼쳐 들고 통도문화예술거리에 있는 당산나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종합문화공간인 통도아트센터에 들르기 위해서였다. 거리를 좀 올라가자 아치형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대한 당산나무가 먼저 보였다. 수백 년 수령의 나무에서 그 위엄이 절로 묻어났다. 가까이 다가가 참나무 등걸을 타고 오르는 기세 좋은 진녹색 이끼에 가만히 손을 대 보았다. 습지에 발을 디딘 듯 이상한 전율 같은 게 느껴졌다. 신평마을의 중심이 되는 4개 부락은 당산나무 중심으로 사방으로 펼쳐져 있다고 한다. 그 위엄과 아름다움, 신비함까지 더한 당산나무 옆에 빨간색 공중전화 부스가 놓여 있었다. 전화기를

들면 과거와 현재, 마을과 마을을 고스란히 이어줄 듯했다. 주변에 마련된 공연무대에서 예술인은 물론 주민들까지 모여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시 낭송도 한다고 하니 당산나무를 배경으로 한 이 거리가 문화예술의 거리가 맞는 것 같았다.

② 통도아트센터 - 순지공립작은도서관

통도아트센터는 당산나무 바로 곁에 있었다. 하북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통도아트센터는 공연, 전시 공간이자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1층에 카페 소소와 우표박물관, 화폐 전시관, 다기 전시관이 있었다. 2층 순지공립작은도서관, 지하에 다목적 공간 등이 들어서 있었다. 건물에 들어서니 어린이와 마을 주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들러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위도 식힐 겸 카페 소소에서 팔빙수를 주문하는데 이내 신평장터에 다녀온다는 마을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마을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소소에는 여느 카페 못지않게 찾는 이가 많은 듯했다.

팔빙수가 나오기 전 잠시 2층 순지공립작은도서관에 올라가 보았다. 순지공립작은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약 10,000권이 넘는다고 했다. 매달 신간 목록에 대한 정보가 게시판을 장식하고 있었고 대출도 가능했다. 유아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젊은 부부들의 발걸음도 잦다고 했다. 시민 대상으로 다채로운 특강과 독서문화행사, 지역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신평마을 문화예술 공간의 정신적 축이 되고 있었다. 창가에 아담하게 꾸며 놓은 책상 앞에 잠시 앉으니 당산나무가 친근하게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하 다목적 공간은 탁구대와 밴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같은 공간에 펼쳐져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입구부터 벽면을 장식한 3.1 독립 만세 운동에 관한 자료였다. 신평만세운동 진원지로서 만해 한용운 선생님과 독립투사들 사진은 물론 신평장터에 모여든 군중들 사진도 여러 장 있었다. 헤아려 보니 양산에서만 독립운동단체가 10개가 넘었다. 신평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재현행사가 통도문화예술거리에서 열려 그 정신을 기리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1960년 하북면 회갑연 사진이었다. 조선 솔밭이라는 양산천 바위에 수백 명의 동네 어르신들이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어렸을 때 귀한 자리에 갈 때 늘 한복을 입고 가던 어머니 생각이 떠올라 사진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그 자리는 신평마을 유지이신 김석배 선생님이 해마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해 온 자리였다. 김석배 선생님은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으로 부산 남포동에서 밀면과 냉면을 팔아 크게 성공한 분이였다. 타계 전까지 신평마을 어르신들의 회갑연을 빠지지 않고 열어 주신 그분에 대한 미담은 지금까지 마을의 전설처럼 내려 오고 있었다. 그 옆으로 경봉 큰스님과 김동리 소설가가 귀빈석에 나란히 앉아 계셨다.

팔빙수 맛은 좋았다. 테이블마다 팔빙수가 한두 개씩 놓여 있으니 그것으로도 맛을 보장한 셈이었다. 카페를 찾는 이들마다 안부를 주고받으며 곧 있을

마을 행사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10월에 62회 하북면민화합한마당 잔치가 열린다고 했다. 음식 등은 4개 부락의 새마을부녀회가 분담해서 치른다고 했다. 어르신들 모두 봉사에 대한 소임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다. 주민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신평마을보다 순지리라는 지명이 귀에 더 많이 들려왔다. 부녀회장님께서 이 마을이 신평마을 이외에 순지리로 불리는 내력을 말씀해 주셨다.

순지라는 이름은 순(蓴)나물이 자생하는 못이 있는 마을이란 뜻이었다. 순나물¹⁾은 어항마름과에 속하는 자주색 작은 꽃이 피는 수생식물이다. 옛날에 연못이 많아 얕은 물에 많이 자랐는데 그 물풀에 물고기가 알을 낳고, 물속 진흙밭에 우렁이가 지천이었다고 한다. 여러 지방에 순지라는 지명이 많은 것도 이런 생태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순지라는 지명은 못이 있고 식물이 있고 주변으로 나락이 자라는, 자연스레 형성된 마을의 생태 환경을 명맥으로 보여 주는 정서적 이름으로 자리하는 것 같았다. 이젠 그런 자생적인 생태 환경이 많이 사라져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되었다.

땀별 더위가 한창인데도 일부 부녀회 회원들이 거리의 풀을 뽑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무심히 지나쳐 온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그분들의 노력 덕분이였다. 그 노고의 길을 지나 통도사에 이르게 될 터이니 두루두루 마을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았다. 그 거리를 걸어 구룡지, 국자감, 금와보살 이야기, 통도사 경내에 있었다는 화북초등학교와 보광

1) 순나물 : 순채, 수채, 금대, 부류 등으로도 불림

중학교의 내력 등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인근에 있는 화북초등학교와 보광중학교의 전신이 통도사 경내에 있었다는 내용이 새롭게 여겨졌다. 가방을 잠시 맡겨 두고 양산만 챙겨 소소를 나왔다.

③ 하북초등학교, 보광중학교

하북초등학교는 1931년 4월 13일에 개교한 순지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이며 2022년, 92회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였다. 그 전신은 통도사 경내에 있는 사립 하북보통학교에 있었다. 통도사 경내에 있던 저학년 학생이 지금의 자리에 학교와 함께 옮겨와 현재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시기 고학년 학생이 보광중학교에 옮겨오게 된 내력과 통도사 승려와 보광중학교가 어떻게 만세운동과 연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보광중학교를 찾았다. 보광중학교는 하북초등학교에서 통도사 쪽으로 한두 블록 올라간 곳에 있었다. 운동장에 들어섰을 때 학생들이 포환던지기를 하고 있었다. 현재 학생 수는 남녀 97명으로 수가 줄어 남은 교실은 목공실, 도서실, 방송실, 예술공감터 등 특별교실과 지원교실로 운영하고 있었다. 선생님의 안내로 역사관으로 들어서니 그곳에 전시된 오래된 교과서와 책상 물품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 주고 있었다. 자료를 수집한 뒤 교장실로 초대를 받아 얼음이 들어간 매실차를 대접받았다.

교장 선생님의 이력을 먼저 들었는데 타지 사람을 통해 신평마을 이야기를

듣는 것도 새롭게 느껴졌다. 1980년대 20대 청년으로 부임해 40여 년을 보광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다고 했다. 부임 첫날 논밭뿐인 허허벌판을 걸어 오던 심정과 서울에서의 생활을 접고 이곳에 정착을 해야 할지 결단이 서지 않아 장터 근처 어느 다방에 앉아 서너 시간을 망설였던 일을 말씀해 주셨다. 40여 년이 지나면서 친척집 알 듯 가가호호 사정을 대부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더 신평 토박이처럼 신평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통도사 경내에 있었다는 학교가 어떻게 마을에 자리하게 되었는지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보광중학교는 1906년 통도사 경내 현재 성보박물관 자리에 있던 불교종립학교인 명신학교가 전신이었다. 2년 과정의 명신학교는 1916년 4월 1일에 창설한 통도사지방학림으로 이어졌고 당시 승려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으로 수학 연한 3년의 중등교육기관이었다. 그곳에서 신교육을 받았던 승려와 학생들은 동부 경남 최초로 1919년 3월 13일 신평장터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신평장터에서 줄다리기 행사가 있어 마을 주민 다수가 참가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희생자를 최소화하고, 다중의 참여보다는 독립 선언 의의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이 거사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통도사에 학교가 있어 독립 선언서 등사와 태극기 제작 등이 쉬웠고, 면서기의 도움이 있어서라고 했다. 이 만세 운동은 인근 양산과 언양은 물론 합천 해인사와 밀양 표충사 스님들의 만세운동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 기백을 고스란히 간직한 통도사지방학림이 폐지되면서 통도중학교로 개교하였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하였다. 이후 1945년 보광초중급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여 다시 보광중학교로 개명하고 1961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 지었다.

어느새 체육 시간이 끝났는지 포환을 던지던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운동장을 나오는데 아름드리 소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원래 학교 자리에는 수백 그루의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학교 터를 닦으며 다 베어지고 지금은 큰 소나무 한그루만 살아남았다고 했다. 학교 동쪽으로 길게 뻗은 구릉지엔 밤나무 숲이 있었고 그 숲속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안치한 뒤 짚으로 덮어 두는 채봉터가 있었다고 했다. 채봉은 시신을 가매장하고 길일에 또다시 장사를 치르는 풍습인데 보통 가매장을 한 뒤 2-3년 정도 지나 육탈이 된 다음 길일을 택하여 다시 뼈만 추려 이차장(두벌문기)으로 치르는 장례의식이라고 했다. 투쟁 중에 옥고를 치르고 생을 다하신 분들의 혼령도 깃들어 있을 것 같았다.

④ 신평장터 - 숙미용실, 50년 할머니 채소가게, 양화점, 잡화점

신평장터는 양산천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신평장이 서는 서부마을은 신평 4개 마을 중 하나로 신평 삼거리에서 보면 시장길을 경계로 그 오른쪽이며 통도사 가는 길 왼쪽에 있는 마을이다. 통도사 산문 앞에서 통도천을 끼고 형성되어 있다. 아담하고 정겨운 보도블록을 사이에 두고 걸다 보니 자그마한 가게와 난전이 펼쳐져 있었다. 장날이라고 해도 사람은 붐비지 않았다. ‘퇴비, 씨앗 팝니다’ 정리가 잘 된 용현상회 앞에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잡화의 세

계가 펼쳐져 있었다. 49년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순간 60년이 되었다는 숙미용실의 낡은 간판이 보였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들었던 50년 넘게 장사를 이어온 경순엄마 야채 좌판 앞에 섰을 때 김대한 여사님에게서 장인에 가까운 내공이 한눈에 느껴졌다. 신평장에서 제일 오래된 상인 어르신인데 사탕 장사로 시작해서 잡화, 과일 장사를 거쳐 지금은 직접 텃밭에서 일군 채소들을 가지고 와서 판다고 하셨다. 신평장 노포 3인방 중 한 명이신 신평양화점 앞을 지날 때 가게 안이 너무 한적해 나머지 쓸쓸한 기분이 스쳤다.

신평장은 1910년대에 개설되어 3일, 8일이 장날이라고 했다. 신작로가 생기기 전에도 양산천을 따라 상인들이 왕래하는 길이 있었고, 그 길목에 여관, 국밥집이 있어 길손들이 먹고 자고 쉬어 가곤 했다. 신평장에도 하북 본면 사람은 물론 인근 울주군 삼남면 삼동면, 남쪽으로 상북면 서쪽으로 원동면 배내 사람까지, 남부여대 갖가지 곡식과 잡다한 팔거리를 준비하여 찾아들었다는 것이다. 겨울이면 울산에서 트럭에 수북하게 싣고 온 대구며 복어를 시장 흙바닥에 부려놓고 팔기도 했다고 한다.

오래된 마을 도로변에는 병원, 약국, 미장원, 식당, 동물병원, 꽃집 등 생활과 밀접한 업소와 상가가 들어서 있고 이면도로에는 어린이집과 초, 중, 고 학생을 고객으로 한 학원 등이 들어서 있다. 도로 앞쪽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자영업에 종사하였고, 한 블록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했다. 간혹 함석 일을 하는 사람, 함지박을 만들거나 죽세공품을 만

드는 사람도 있었고 다부장사(인근 마을 주민들이 장날 가지고 오는 소량의 곡식을 수집하여 실수요자에게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람)도 몇 집 있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장에서 각종 플라스틱 생활용품이 쏟아져 나온 데다 전문적인 상설 미곡상회가 문을 열고 농협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그런 업종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시장 바로 옆에 우시장(가축시장)이 있었다는데 1960년경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빈터로 남아 있다가 현재 통도사어린이집이 들어섰다고 했다.

통도사어린이집에 간 이유는 비석 하나를 보기 위해서였다. 장터 인근에는 지금은 사라진 특이한 장소가 있었다. 현재 보광중·고등학교 남계회관 자리, 교문로와 나란히 지어진 공회당(公會堂)이 있던 자리였다. 다목적 집회장이었는데 실내 바닥보다 1m 정도 높게 지어졌고 그리 넓지 않은 무대가 있던 곳이라고 했다. 학교로 이전되기 전 약 20년간 추석, 설 명절에 맞추어 신평 청년들이 준비한 연극을 이곳 무대에서 올리곤 했다는 것이다. 각본, 연출, 연기, 무대 장치 등 모두 신평마을 청년들이 맡았다고 했다. 공연은 연일 만석이었고 당시 유행하던 콩쿠르도 자주 열렸다고 한다. 이동식 가설극장이 자주 찾아와 여기에 가림막을 치고 철 지난 영화를 상영해 성황을 이뤘는데 TV가 보급되면서 이동 극장은 그 모습을 감추었다고 했다. 그 빈자리에 1980년 3월 28일에 어린이 놀이터를 개설하고 청년회원이 글을 지어 새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한다. 그 자리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면서 방치되어 있던 비석이 근래에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누군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그곳에서 잠들어 있을지도 몰랐다. 들판의 빈터에서 시작해 공회당을 거쳐 가설 무대가 되었다가

극장이 되고 놀이터가 되고, 이제는 어린이집이 된 공간. 어린이집 대문 오른쪽으로 잔포를 헤치고 다가가 보니 그 비석은 쓸쓸하게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⑤ 통도사 - 영축산 - 구룡지 - 금와보살

신평장터를 벗어나 영축산(靈鷲山)이 품고 있는 통도사 쪽으로 향했다. 독수리 취(鷲)자의 영취산(靈鷲山)이 영축산(靈鷲山)과 혼용해서 불리게 된 이유는 한자음 취(鷲)가 불교식으로 축으로 발음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취와 축의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2001년 양산시에서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축산으로 부르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한다. 통도사에 오는 관광객들 중 가끔 종무소에 이를 묻는 이가 있어 사정을 이야기해도 고개를 가웃거리며 간다고 했다.

통도사는 한국의 삼보사찰 중 하나이며 자장율사가 창건한 절이다. 석가모니의 진신사리(眞身舍利)가 안치된 적멸보궁(寂滅寶宮)이 있어 불보(佛寶)사찰로도 불린다. 통도사라는 절의 이름은 모든 진리를 회통(會通)하여 일체중생을 제도(濟道)한다는 뜻에서 통도(通度)라 하였다. 신라 시대에는 모든 승려들이 통도사 금강계단에 와서 계를 받았고, 승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이곳의 금강계단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도사라는 이름이 유래된 것이다. 금강계단은 구룡지와 연관이 있었다.

언젠가 통도사에 들렀을 때 적멸보궁 근처 연못에 동전을 던졌던 일이 있었

다. 소원을 빌었을 텐데 기억은 나지 않고 금빛, 은빛으로 빛나던 동전의 양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그곳이 구룡신지(九龍神池)터였다. 이 연못에는 자장율사가 아홉 마리의 독룡(毒龍)을 물리친 창건신화가 내려오고 있다. 그 중 한 마리만 선한 마음을 품고 이 연못에 남아 절터를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그 용이 연못에 살고 있다는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상하게 그럴 것도 같아서였다. 자장율사가 그 연못에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불사리와 가사를 봉안한 이유는 문수보살님이 그렇게 하면 물, 바람, 불이 일으키는 자연재해를 면하게 되어 만대에 이르도록 멀하지 않고 불법이 오랫동안 머물러 천룡(天龍)이 그곳을 옹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라고 한다.

영축산이 발원지인 양산천 무풍교 아래로 화강암 암반이 제법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 편편한 바위에 힘있게 새겨진 한자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구하(九河) 스님(1872~1965)의 시를 바위에 새겨 놓은 것이라고 했다. 유수천년 통도사(流水千年 通道寺) 낙화삼월 무풍교(落花三月 舞風橋)라고 쓴 것인데 유려한 달필에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찾는 곳이라고 했다.

영축산에 자리한 자장암 금와보살 이야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자장암 법당 뒤쪽 암벽에 석간수가 나오는데 자장율사가 손가락으로 바위에 구멍을 뚫어 금개구리를 살게 하였다는 전설이었다. 관세음보살 기도문이 새겨진 글씨 옆 자그마한 구멍에 금개구리(금와보살님)가 나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했다. 올해 봄에 금와보살님이

모습을 보였다 하니 신평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사당은 마을 지도를 들여다보며 탐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지도로 본 국사당은 영축산 허리 밑 양산 서리마을 산책길에 자리하고 있었다. 국사당은 1월 1일 새해맞이를 하는 곳으로 신평마을을 수호해 주는 신을 모신 사당이었다. 신평마을 4개 부락에서도 해마다 이곳에 올라 해맞이를 하고 제를 올린다고 한다. 국사당 벽면에는 신선의 세계를 그린 탕화가 그려져 있고 국사당 앞에 국사정이라는 작은 별채가 있는데 주민들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나눠 먹는 장소이자 비품들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했다. 소임을 맡은 4개 부락 회원들이 한해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러 이곳을 오르는 장면이 머릿속에 훤히 그려졌다. 양산천 무풍교에서 다시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⑥ 마을운영공동체 - 4개 마을 이장단, 새마을부녀회, 신평청년단, 새마을지도회, 의용소방대

다시 찾아 들어간 소소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카페 한쪽에서 부녀회 막내가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는데 잠시 짬을 내서 저녁 찬거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른 부녀회원들이 합석을 해 콩나물 다듬기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고구마 순이 많이 나는 계절에는 고구마 순 껍데기를 까고, 신평장터에서 도라지를 산 날은 다 같이 도라지 껍데기를 벗긴다고 했다. 화제는

이내 10월에 있을 62회 하북면민화합한마당잔치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갔다. 통도아트센터 공터에서 윗놀이 대전이 펼쳐지고 게이트볼 경기장에서 시니어 게이트볼 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날 모일 수백 명 지역 주민들 음식을 4개 마을 부녀회에서 분담해서 장만한다고 한다. 집안 대소사 치르기도 버거운 세상에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노고의 과정이 훤히 그려졌다.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종갓집 가풍을 이어받듯 자연스레 마을공동체 일에 참여하며 소임을 이어받는 것 같았다. 하는 일만 보아도 어느 분이 신입회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북면민화합한마당잔치는 물론 해마다 열리는 정월대보름 행사, 3.3 당산제 등은 4개 부락의 이장단과 부녀회, 신평청년회, 새마을지도회, 의용소방대 등이 연대를 해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당산제에 대해 여쭙자 귀찮은 기색도 없이 서로 한 마디씩 말씀을 해 주셨다.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당산제는 마을의 풍요와 평안 등을 기원하는 소박한 목적과 특유의 의례가 있었다. 제일(祭日)은 3월 3일이며, 제관은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한다고 했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산가(産家)·상가(喪家)의 출입과 외지 출타 등을 금하고, 개고기 등의 궂은 음식을 피하고 언행을 삼가며, 목욕재계를 하는 등 매사에 근신을 한다고 했다. 신평마을 당산제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마을 4개 마을에서 순번대로 제물을 준비하여 이장, 노인회장 등이 제관이 되어 의례를 진행한다. 제물은 일반 기제사와 별 차이가 없다. 제물 준비, 새끼 꼬기 비용, 수고비 등으로 약 60여만 원 지출되며 마을 대동회에서 경비를 부담한다. 매년 당제를 준비하는 마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마을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산제를 준비하는

마을이 중심이 되긴 하나 4개 마을이 전부 참여하는 신평마을의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라고 했다. 그 행사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얽혀 있는 감정을 해소하는 화해의장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다른 동제(洞祭)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풍년과 평안을 위한 제의인 한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여 즐거움으로써 축제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다듬은 콩나물 양을 보니 한 집으로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처음 왔을 때 계셨던 어르신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눈이 몇 번 마주쳐 일어서며 인사드렸더니 조심해서 가라고 하셨다. 순채꽃이 피는 연못, 순지리 사람들은 먼 거리 타지 사람이 와도 이웃처럼 따뜻하게 맞아 주는 사람들이었다. 10월 축제에 놀러 오라는 부녀회장님의 고마운 말씀을 듣고 아쉬운 마음으로 소소를 나와 터미널로 향했다. 밝은 양산을 펼 일도 없이 햇볕이 찾아 들고 있었다.

신평마을
이야기

양산시 하북면 신평마을은 예전 순지리라고 불리던 마을로 하북면의 중북부에 위치한다. 순지라는 이름은 순(蓴) 나물¹⁾이 자생하는 못이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순지리는 동쪽은 답곡리, 서쪽은 지산리, 남쪽은 초산리와 답곡리, 북쪽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과 각각 접하고 있다. 통도사의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고 관광지였던 통도사의 영향으로 숙박 업소와 음식점, 유흥가게 등 서비스 업종의 관광 관련 매장들이 많다. 하북면사무소, 통도사 우체국, 하북파출소,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광중·고등학교 등 주요기관들이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 동, 서, 남, 북부마을로 나누어져 있다. 당산나무도 있는데 통도사로 이어지는 신평중앙길 통도아트센터 앞 하북면 순지리 797-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인구가 밀집된 도시화 지역으로 되어 있다.



1) 순채. 연꽃잎과 비슷한 모양이며 나물로도 약용으로 먹었던 식물. 자생하는 곳 또한 연못이라 연과 비슷하며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순(蓴) 나물과 순나물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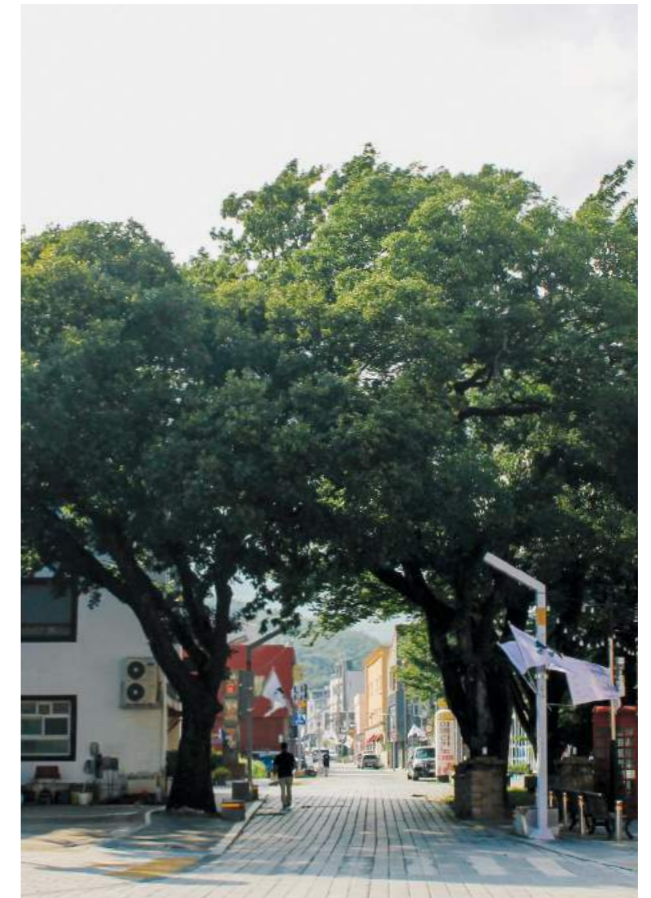
1. 당산나무

신평마을로 들어서서 옛길(예전에는 통도사로 가던 중심길) 신평중앙길로 올라가다 보면 통도아트센터 앞 사거리에 커다란 두 그루의 나무가 길 양옆으로 위치하고 있다. 마치 마을입구를 지키는 장승 같은 느낌으로 상서로운 기운을 뿜내며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는데 이 나무가 바로 신평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이다. 마을로 보면 신평마을의 중심에서 있으며 마을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당산나무와 달리 나무 근처에 있는 당집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산목은 느티나무, 당산신은 할배신, 할매신 이렇게 모시고 있다고 한다. 제단은 화강암으로 2조가 있는데 중앙의 제단은 길이 183cm, 너비 105cm, 두께 30cm로 초대형이며 나머지 1기 역시 길이 120cm, 너비 80cm, 두께 22cm의 큰 규모이다. 당산제는 음력 3월 3일이다.

당산제를 지낼 땐 제관이 있으며, 제관으로 선정되면 부정이 타지 않도록 언행에 신경을 쓰고 몸을 정갈하게 하고, 심지어 3개월간 부부생활을 금하는 등 길사, 흉사, 부정한 곳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에도 이런 제관이 지켜야 되는 약속은 지켜지고 있으나 3개월에서 일주일 정도로 기간이 줄었다.

신평마을 당산제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마을 4개 마을에서 순번대로 제물을 준비하여 이장, 노인회장 등이 제관이 되어 의례를 진행한다. 제물은 일반 기제사와 별 차이가 없다. 제물 준비, 새끼 꼬기 비용, 수고비 등으로 약 60여만 원 지출되며 마을 대동회에서 경비를 부담한다.

매년 당제를 준비하는 마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마을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산제를 준비하는 마을이 중심이 되긴 하나 4개 마을이 전부 참여하는 신평마을의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이다.





마을제의 진행과정

당산제일인 음력 3월 3일, 일주일 전쯤 당년도 준비하는 마을 이장은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기 시작하며 금줄용 새끼를 꼬아 금줄과 제사에 올릴 음식들을 준비한다. 그리고 대략 일주일 전에 당산나무 주변에 대한 청소를 하고 먼저 당목에다 금줄을 두르고 당목과 제단 바깥으로 끈 새끼와 대나무, 솔가지 등을 이용하여 넓게 금줄을 두른다.

3일 오전 10시경 마을회관에 모여 당산신에게 보고할 전년도 마을에서 행했던 일들의 결산과 당년도 마을에서 진행할 일들을 정하는 회의를 한다. 이후 준비한 제물과 제기 등을 운반하여 중앙부 당목 제단에 제물을 진설하고 마을의 일들을 당산신에게 고하며 제를 준비한다.

제물 진설 및 제의 과정 사진(2017년 동제)을 제공한 순지 동부마을 박춘길 이장 자료에 의하면 제단 좌우에 촛대를 세우고 5열의 제물을 진설한다. 제관을 중심으로 제례 참석자는 의관을 갖추고 5명의 인원이 제물 진설에 참여한다.

진설한 제물을 보면 당산 신위로부터 1열에는 당산 할배, 할매신의 국, 술류를 올린다. 2열에는 떡류와 생선류를 좌우에 포진하고 나물류를 진설한다.

3열에는 갖가지 전류, 튀김류, 문어 등 해물류, 고기류(닭 등)를 올린다. 4, 5열에는 과자류를 비롯하여, 수박, 사과, 배, 참외, 바나나, 밤, 대추 등의 과일류, 한과, 명태포 등을 진설한다.

다음으로 제관은 진설된 제물을 두루 살펴보고 혹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의례를 시작하였다. 제관 1인을 비롯하여 총 3인은 한복과 갓 등 의관을 갖추고 순서대로 술을 올리고 재배하면서 의례를 시작한다. 이어 제관은 순지마을의 동, 서, 남, 북부마을 민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 무탈하게 어려움을 이겨 내자는 내용을 담은 준비한 축문을 읽는다. 이후 종료될 때 한지는 촛불에 태우면서 무탈하게 해 달라고 기원하고 금줄에 한지를 끼우기도 한다. 이렇게 의례가 종료되면 곳곳에 술을 뿌리고 음복하고 참석한 마을민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담소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신평마을의 당산제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마을 4개 마을에서 순번대로 제물을 준비하여 지내는 대동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화된 사회에서 전통 문화는 간략화, 소멸화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관찰되지만 하북면 신평마을의 당산제는 전통적이고 지속력 있는 전통 사회의 대동제 모범 사례라 평가된다.



(위) 당산제에 음식들을 올리고 있다. / (아래) 당산제 음식들



새끼를 꼬아 만든 당산제의 금줄 (2022년 당산제 당시 사진)

2. 통도아트센터

신평마을의 당산나무가 위치한 곳 바로 옆에는 통도아트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2016년 5월에 개관한 통도아트센터는 신평마을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바로 옆 공연장에서 많은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건물 안에는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카페소소가 있으며 이곳은 신평마을 주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신평마을의 대표적인 장소이자 마을 문화 강좌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마을 회의나 주요한 일정을 이야기할 땐 이곳에서 거의 이루어진다. 카페 옆에는 우표, 화폐 전시관, 하북면 주민의 도예가들이 만든 다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도예가가 유달리 신평마을에 많은 것은?

“통도사의 스님들이 차를 마시니까 차 문화가 발달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도구인 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 근처의 마을에서 도예가 발달되었던 거 같아요.”

- 산인요

2층에는 순지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의 이름 ‘순지작은도서관’은 신평마을의 옛지명인 순지를 그대로 살리고 있다. 옛명을 살리게 된 이유는 예전엔 당산나무가 마을의 위치의 지표였다고 한다. 그래서 “순지나무 옆에 사는 개, 나무 북쪽으로 10리 떨어져 사는 개” 이렇게 불렀기에 마을을 떠난 사람이 다시 마을을 돌아왔을 때 당산나무와 이름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도서관 이름을 ‘순지’ 도서관으로 지었다고 한다. 지하에 있는 대강당부터 3층까지 이

어지는 계단에는 신평마을의 특별한 이야기가 사진들과 함께 아카이빙 되어 있는데 바로 신평마을의 경로잔치와 신평마을 만세운동에 관한 이야기이다.



마을카페 소소와 순지작은도서관이 함께 있는 통도아트센터.

3. 신평마을 경로잔치

신평마을에는 매년 마을의 어르신들의 경로잔치를 열어 주었던 사람이 있었다. 신평마을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부산 남포동에서 ‘향원장’ 식당을 하며 큰 자산을 모은 김석배 선생이다. 이분은 사재를 털어 특별한 연고가 없는 하북면 노인들을 모시고 해마다 경로잔치를 베풀었고, 노인들의 영정 사진도 찍어 드렸다.



김석배 선생 / 김석배 선생이 열었던 경로잔치



통도아트센터에 아카이빙 되어 있다. / 김상철 통도아트센터 사무국장이 어릴 때 찍힌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김석배 선생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 통도사 신도회장을 맡았고, 당시 인도를 여행하며 불교 4대 성지를 찾아 참배하고, 촬영한 영상을 신도들에게 보여 주었으며 책으로 엮어 배포한 인물이기도 했다.

- 신충길 선생님

“김석배 선생, 이북사람으로 알고 있어. 부산서 냉면 밀면 공장 해서 성공한 사람이야. 취미가 사진이랑 영화 촬영이 취미였다고 들었어. 7-80년대에 네팔 인도에 부처님 성지순례를 갈 정도였으니. 우리 마을에 40년 넘게 살았는데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모아서 경로잔치 해 줬어. 10년 동안이나. 그분이 마을 어르신들 영정 사진을 다 찍어 줬어. 김석배 선생이 북에서 넘어올 때 부모 사진을 하나도 못 가져온 게 한이라 마을에 살던 어르신들의 사진을 다 찍어 줬어. 그렇게 10년 동안 매년 경로잔치를 열어 주시다가 내가 청년회 할 때 그분이 청년회한테 돈을 200만 원을 줄 테니 너네들이 이제부터 환갑 맞이하신 분들 경로잔치도 하고 영정 사진을 찍어 드려라 하셨어. 그리고 계속 이어졌다가 80년대 지나면서 못하게 되었지. 그분을 기리는 비도 만들고 싶어. 내가 나중에 사진을 보는데 엄마가 보이는 거야. 알고 보니 어릴 때 나왔어.”

- 김상걸 선생님

통도아트센터는 신평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해 아낌없이 베푼 김석배 어르신을 기리기 위해 당시 경로잔치의 사진들을 아카이빙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마을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4. 신평마을 만세 운동

1919년 3월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열렸던 3.1운동. 만세 운동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났으나 100년 전 경남지역 만세 운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만세 운동이 바로 신평마을 신평장에서 있었다. 신평 만세 운동은 통도사의 승려들이 중심으로 일어난 특별한 만세 운동이었다.

서울이 아닌 경남, 양산에서 항일 운동은 1919년 이전부터 꿈틀거리고 있었다. 양산 좌상마을의 서병희는 13도 창의군 1만여 명이 참가한 서울 진공 작전에서 선봉장으로 싸우지만 동대문 밖에서 패배하고 양산으로 내려와 김병희 김교상 부자와 함께 의병 활동을 하다 순국한다.

이러한 양산의 의병 활동은 의병을 진압하러 왔던 일본군 보병 14연대 진중 일지를 통해 역사적으로 밝혀지게 된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대통령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했고, 폴란드의 독립 문제가 제기되는 등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들에게서 조금씩 독립 운동이 싹트게 된다. 이런 국제적인 영향을 받아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은 이른바 2.8 독립 선언을 발표한다. 국내에서는 1919년 1월 21일 고종께서 승하하고 고종의 사망에 일제의 독살설도 나오면서 민심이 들끓기 시작하고 고종의 장례일이 3월 3일로 정해졌다.

이후 민족 대표 33인은 3.1 독립 선언문을 작성하고 1919년 2월 27일 독립 선언서 35,000여 부를 인쇄하며 운동을 준비한다. 민족 대표 중 한 분이신 만해 한용운은 2월 28일 경성에서 통도사 승려이자 자신의 제자였던 오택언에게 독립 선언서를 주면서 통도사에 가서 독립 만세 시위를 주도하라는 밀지를 내리게 된다.

불교계에서는 당시 학교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906년 설립한 명진학교(현 동국대학교) 즉 중앙학림은 서울에 있었고 통도사에는 1906년 명신학교로 설립



통도아트센터 지하 강당엔 만세 운동의 자료들이 아카이빙 되어 있다.

되었다가 1913년 통도사학림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방학림으로 부르던 근대 교육기관이 있었다. 통도사 학림의 학생 수는 60여 명이었다. 통도사 학림에서는 만해 한용운이 학생들을 지도했으며 진관사 태극기로 유명한 백초월 스님도 강사로 교육을 담당했다. 이런 교육의 영향 탓에 학생들의 민족 의식과 항일 의식이 남달랐다. 통도사학림 출신의 오택언은 서울의 중앙학림에서 유학하고 있었다.



초월 백인영(1878-1944) | 독립운동가, 명진학교(동국대학교) 교장

1919년 3월 5일 통도사 만해 한용운 밀지를 받은 오택언은 뜻을 함께할 동료들을 모은다. 이날 함께한 사람들은 통도사학림 학생 대표 김상문, 동료 스님 양대응, 신화수 그리고 하북면 면서기였던 박수문이었다. 이들은 신평장터에서 장날을 기해 만세 운동을 벌이기로 한다.

신평마을은 작지만, 당시 양산 근처의 4대 장 중 큰 장으로 불릴 만큼 인근 하북면 사람들, 상북면 울주군 삼남면, 삼동면 그리고 멀리 배내골 사람들이 영축산을 넘어 장을 보러 오는 곳이었다. 그해 3월 13일에는 마침 줄다리기 행사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한다.

주모자인 양대응 스님은 땀감으로 쓰는 나무들을 몇 짐 가져다 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피워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변의 이목을 끌었고, 신평장은

장터 전체가 하얀 연기가 자욱하여 정말 불이 나서 집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들에게 선언문을 나누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배포했다. 만해 한용운에게 밀지를 받았던 오택언 스님은 3월 7일 체포가 되었지만 3월 13일 신평 만세 시위는 이후 승려들과 장날에 모인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번개같이 치러진다. 만세 운동은 계획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일본 경찰 주재소가 통도사 경내에 있었지만 승려들에 의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통도사에서 신평마을-신평장까지 거리가 멀었기에 일본 순사들의 출동이 늦어졌다. 그리하여 신평 만세 운동의 주동자들은 현장에서 바로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헌병대사령부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3월 13일 신평마을 만세 운동은 “통도사 부속 보통학교 및 지방학림 생도 4~50명, 동(同) 불교전수부 생도



만해 한용운 | 제자였던 오택언에게 밀지를 내렸다.

오택언 승려 | 한용운의 밀지를 받고 신평 만세 운동을 준비하나 3월 7일 체포되었다.

양대응 승려 | 신평 만세 운동을 주모했다.

약 10명, 불령(不逞) 승려 약 10명이 주모자가 되어 신평시장에서 시위운동을 감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통도사의 승려들 그리고 70여 명 지역 주민들 까지 합하면 최소 200여 명이 만세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대응 스님은 도피를 하다가 1945년 해방 후 초대 통도사 주지가 된다. 면 서기였던 박세문은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고베에서 일경에 검거되어 모진 고문을 받다가 1920년 9월 5일 순국하게 되었다. 학생 대표였던 김상문은 하북 면 순지리 출신으로 중국 상해로 도피해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 경부선 연변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잡입, 요인 탈출, 독립 자금 모금 등 항일 독립 운동을 이어갔다.

3월 13일 신평마을 만세 운동 이후 만세 운동은 확산되었다. 3월 27일에 양산 읍내장터에서 당시 중부동에 살던 엄주태가 주동이 되어 3천여 명이 모인 대규모 만세시위가 이루어졌고, 3월 31일에는 석계장터에서, 5월 4일에는 신평장터에서 다시 대규모 만세 시위가 벌어졌다. 신평마을의 만세 운동이 있고 난 후 통도사 승려들의 영향을 받아 밀양 표충사의 만세 운동이 뒤이어 벌어졌다. 신평마을은 2019년,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평마을 만세 운동을 재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마을 내외부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경



2019년 신평마을 만세 운동 100주년 재현 행사

남 최초의 만세 운동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에서 진행했다는 것에 주민들은 자부심을 느꼈던 재현 행사였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현 행사는 중단되었다. 100주년 행사에 맞춰 신평 만세 운동의 노래가 제작되었다. 가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신평만세운동의 노래

김명관 작사, 천득우 작곡, 양산시립합창단 노래

낙동정맥 뺏어 내린 영축산 아래
 항일의 요람, 독립의 터 하북 순지리
 삼월 십삼일 신평장터 울려 퍼진 독립의 함성
 경남 혼 깨웠다 민족을 깨웠다
 아 항일의 울림터 통도사 학림
 아 독립의 울림터 하북 순지리

독수리 날개 펼친 성스러운 이 땅에
 배일의 요람으로 우뚝선 하북 순지리
 그 날을 기억하라 대한독립 구국의 함성
 경남 혼 깨웠다 민족을 깨웠다
 아 항일의 울림터 통도사 학림
 아 독립의 울림터 하북 순지리

5. 신평시장

“신평장, 구포장, 양산장, 언양장, 이렇게 예전에 4개 시장이 경남권에서 제일 큰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신평장이 많이 죽었어. 세 번째 정도 크기였는데 말이야.”

- 김상걸 선생님

신평장은 조선 시대에 이미 밀양 지역 주민들이 한피기고개(929m)를 넘나들면서 이용할 정도로 넓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재래시장이었다. 부산의 구포장, 양산의 양산장, 언양 지역의 언양장들과 함께 경남 4대 시장으로서, 그 중에서도 세 번째라고 하니 그 규모가 크기도 했다. 매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에 장이 서며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장이 펼쳐진다. 신평장이



2023년 신평장 풍경

라는 명칭은 예전부터 쓰여 왔으나 공식적으로 ‘신평장’이라는 명칭이 된 것은 1942년 시장 위치가 공식적으로 지금 위치로 개설되면서부터다.

2004년 지상 1층의 철골조 건물 네 동이 신축되었고, 이때 점포 51개가 입주하였다. 입주된 점포와 함께 장날이 되면 신평장으로 모여드는 상인들이 좌판을 깔아서 그 규모가 현재의 신평 삼거리까지 나오게 된다. 지금은 신평마을의 인구 감소와 양산 시장의 크기에 밀려 규모가 줄어들었다. 신평장은 1919년 3월 13일 통도사학림 학생들과 지방학림 학생들이 주동이 된 독립만세 운동이 벌어진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다.

지금의 신평장은 신평마을의 고령화로 인해 예전의 크기는 찾아볼 수 없지만 여전히 장날이 되면 50년 전의 장날을 찾았던 몇 상인들과 지금의 상인들이 좌판을 깔고 장을 열고 있어서 당시의 정취가 조금은 묻어난다.



1970년대 신평장 풍경 / 2023년 신평장 풍경



(위) 신평장터 기념표지판 / (아래) 2023년 신평장 풍경



2023년 신평장 풍경



신평장을 지켜 온 제일 오래된 주민들

신평장에는 신평장 안에서 50년 넘게 장사를 이어온 신평장의 산증인들, 노포 3인방이 있다. 좌판 장사로 이어오는 신평장에서는 경순어머니라 불리는 김대한 어르신, 그리고 지금의 슈퍼마켓인, 식료품부터 농사 도구 등 다양한 물품을 팔았던 잡화점 용현상회 그리고 신평시장의 유일한 수제화 양화점 이렇게 3인방이다.

경순엄마 좌판 김대한, 85세 신평장날에만 나오시는 50년 된 장사꾼

50년 넘게 신평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제일 오래된 상인 어르신. 작은 사탕 장사로 시작해서 잡화, 과일 장사를 거쳐 지금은 직접 텃밭에서 일군 채소들을 가지고 와서 작은 좌판에 꺼내어 장사를 하시고 계신다. 경순이 엄마 가게(김대한 어르신) 직접 텃밭에서 일군 작물들을 손질해서 판매하신다.



김대한 어르신 / 직접 텃밭에서 일군 작물을 손질해서 판매하신다.

Q 언제부터 신평장에서 장사를 하셨나요?

“내가 지금 85살이에요. 38살부터 장사를 했으니 50년이 넘게 장사를 했네요. 38살에 와서 39살에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침 8시쯤 되면 나와서 장사를 하고 5시가 되면 집에 들어갑니다. 예전엔 시계도 볼 틈이 없어서 해가 뜨면 나오고 해가 지면 정리하고 들어갔어요. 원래 장사를 안 했는데 그때 남편이 삼대독자 같은 사람이라서 일도 안 했어.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깐 남편이 나보고 돈 안 벌어 주면 같이 안 산다고 해서 그래서 나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지. 여기 뒷방에 우리 애 한 명 데리고 와서 조그마한 방에 살았지.

처음엔 사탕 장사로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사탕 이랑 라면땅을 먹었어. 그래서 그걸 팔았는데 사탕이랑 라면땅을 팔아서 하나둘씩 돈을 모았지. 그때 번 돈 200만 원을 주고 여기 앞에 건물에 들어

갔어요. 이 건물에서는 과일 장사를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여기 좌판에 내가 지은 채소를 팔고 있어요.

지금은 통도사로 올라가는 길이 저기 버스터미널 옆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통도사 가는 길은 바로 여기 시장 옆이었어. 그 길에서 커피도 팔고 물도 팔고 과자도 팔고 상점들이 많이 있었지. 다들 통도사 가려는 관광객이었는데 통도사로 올라가면서 사 먹고 가서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어. 특히나 공휴일만 되면 여기 이 길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다녔어.”

Q 신평장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옛날에 우리 말고도 나무 장수가 있었지. 나무를 이고 와서 팔기도 했었어. 그땐 연탄이 없었고 땀감으로 나무를 때었었거든. 나무 장수가 나무를

산에서 해서 지게에 이고 오면 5천 원에 팔았고 나무를 보자기에 싸서 가져오면 3천 원에 팔았어. 그때는 지금처럼 시장도 많이 비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거든.

참... 옛날이 좀 재미가 있었어. 도시 사람이 통도사 가려고 여기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물건도 많이 사고, 또 많이 사 먹고 했었거든.

지금 여기에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 요즘 사람들 보면 나도 예전에 저렇게 살았구나 싶고 저렇게 젊었을 때가 참 그리워. 그때도 장사한다고 여행도, 또 놀러도 못 다니고 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재미있었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



용현상회 강성조, 81세 지금의 마트 역할을 했던 49년 된 잡화점

경순어머니가 장날에만 연다면 용현상회는 365일 계속 신평장을 지키고 있는 건물이 있는 가게이다. 야채부터 과일, 설탕, 커피,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 도구들까지. 지금으로 치면 마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잡화점이다. 경순어머니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상점이다.



강성조 어르신 / 밖에서 본 용현상회

Q 언제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음. 장사를 언제부터 했냐. 보자... 신평장이 서고 운영한 지 50년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처럼 잡화점을 했어. 신평장에 오래된 가게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두방이고, 하나는 여기 옆에 경순이 엄마 가게인데, 구두방보다 전에 했고 앞의 경순이 엄마보단 늦게 시작했지. 그땐 슈퍼라는 게 없어서 우리 가게에서 뭐 다 팔았어.

설 때 일찍 부산 진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 와서 여기서 이렇게 팔았어. 짐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와서 다음날 새벽부터 물건들을 팔았지. 그땐 마을에 사람도 많았고 우리 가게가 정말 모든 걸 다 팔아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바글바글했어. 요즘은 학교에서 운동회나 소풍을 안 하는데 그때는 운동회 하면 김밥을 만들려고 전날 저녁에 여기 가게 앞에서 저기 통도사 올라가

는 길까지 줄을 짝 서서 재료를 사 갔어. 줄을 서면서 물건을 사 가고 해서 진짜 마칠 때까지 바빴어.”

Q 시장의 옛날 모습이 궁금해요.

“옛날엔 여기 시장이 목조건물이었거든. 얼마 전에 공사해서 이렇게 철 구조물로 튼튼하게 바뀌 났지. 그때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관(현 삼성SDI)이 없어지면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다른 마을로 가 버리니깐 마을이 조용해지고 장사도 안 좋아졌어. 또 마트가 생기면서 우리는 더 안 되었지야. 지금 젊은 사람들도 많이 없고 해. 지금의 마트가 우리집이었으니깐. 이제 장사도 잘 안 돼. 그래도 끝까지 해야지.”



여러 물건이 진열된 용현상회

신평양화점 박재형, 77세 48년 된 유일한 신평의 수제화 집

신평양화점은 신평마을에서 유일한 맞춤 수제화를 만들었던 상점이었다. 신발 전문 매장과 백화점이 생기면서 신평양화점에서 맞춤 신발을 하는 사람들은 줄기 시작했고 삼성전관이 없어지면서 지금의 신발을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신평장을 지키고 있으며 어르신이 예전부터 만들었던 신발들이 나열되어 있어 시간이 흐르며 변화된 신평양화점의 마크와 구두 디자인들을 만나 볼 수 있다.

Q 언제부터 신평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1970년대부터 구두점을 했어. 지금 여기 이 신평장에서는 90년도부터 일했고, 저기 옆에 통도사 올라가는 큰 도로에서 70년도부터 90년도까지 20년간 해 왔지. 그때 마을은 지금처럼 벽돌집이 아니라. 70년대지만 짚풀로 지은 초가집들이 주욱 이어져 있었어. 그땐 이렇게 건물이 좋지 않았었지. 생각보다 여긴 더 시골이었어. 2010년이 지나서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철골 구조물로 바뀐 지 10년 안 되었어.”

Q 어떻게 해서 양화점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난 잘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이라서 돈을 벌고 살아가려면 이렇게 앉아서



박재형 어르신 / 밖에서 본 신평양화점

하는 기술을 배워야 했거든. 그래서 부산에서 구두를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신평마을에 와서 구두를 만드는 일을 했지.

맞춤 신발이라고 해서 부자들이 맞춤 거 같은데 의외로 서민들이 구두를 맞춰서 신었어. 신발 한 켤레를 재단하고 만드는 건 딱 하루가 걸리는데, 구두를 만드는 가죽 재료를 사러 부산에 가야 하고 가죽을 가지고 와서 재단하고 또 재어 보고 만들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보통은 일주일이 걸려. 70년대에 여기 농협이 생기면서 농협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동면사무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집에서 구두를 맞춰서 신었어. 그리고 삼성전관이 들어오면서 마을도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손님도 많았고. 70년대, 80년대에는 지금보다 배로 마을에 사람들이 많았지.

나중에 백화점이랑 신발 전문 매장이 생기면서 다들 메이커가 있는 구두를 사서 신더라고. 그리고 삼성전관이 나가면서 신발을 맞춰 신는 사람들이 점점 줄더라고.

지금은 구두를 맞추는 거보다 신발 수선을 많이 하고 있어. 일 년에 한두 개 정도 맞춤 요청이 들어와서 구두를 만들고 있어. 이제 사람들이 예전처럼 맞춰서 안 신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백화점에 가면 잘 나오잖아.”

진열된 수제화



신발을 만드는 박재형 어르신 / 신평양화점 수제화 마크가 있는 갈창



6. 옛 신평거리

신평마을에서 통도사로 올라가는 큰길은 두 개가 있다. 마을을 통해서 신평장과 통도아트센터를 지나 올라가는 옛길 그리고 현재 통도사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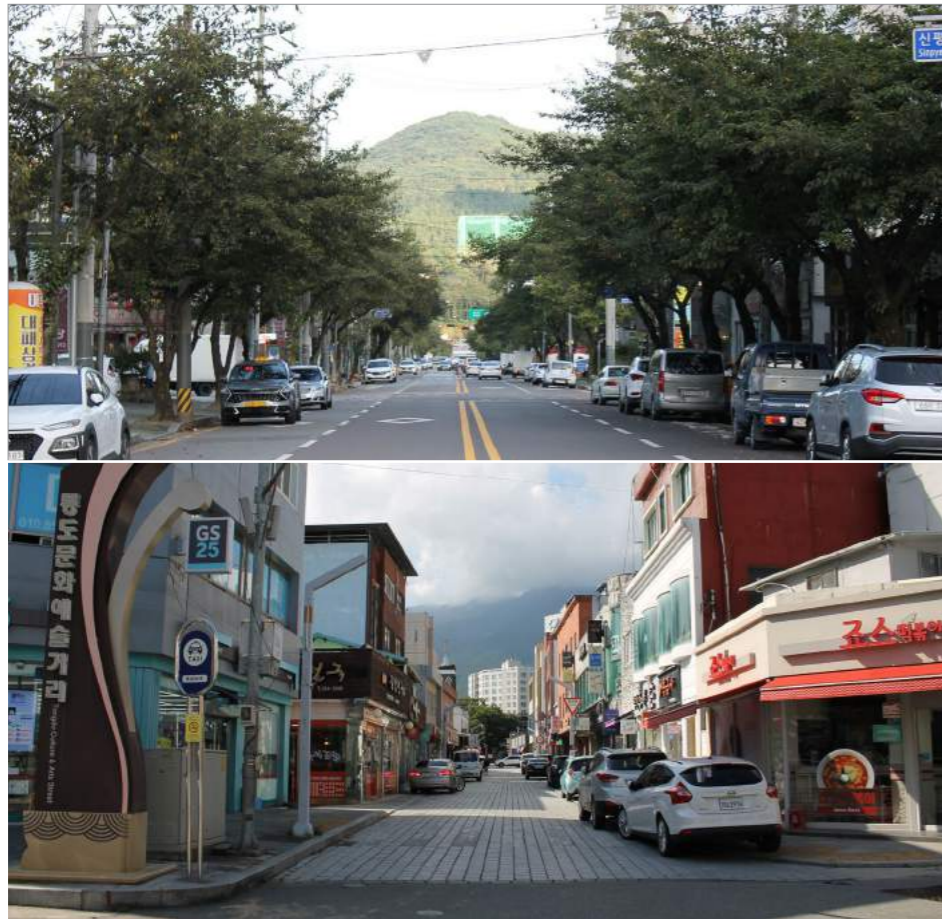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자의 길이 통도사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 길 양옆으로는 신평장을 비롯해 많은 상점들과 좌판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는데 당시 관광객들은 버스를 타고 신평마을에 내려서 이곳에서 먹거리를 사고 모자나 옷 같은 것들을 사서 통도사와 그 밑의 계곡에 가서 피서를 보내기도 했다. 관광호텔들도 많아서 관광객들은 마을에서 직접 숙식을 해결하며 시간을 보냈다. 통도사는 신평마을의 번성을 이루게 한 중요한 관광지였다. 또한, 삼성전관이 마을 옆에 들어서게 되면서 전국에서 공장을 다니기 위해 이곳으로 왔고 신평마을은 북적거리기도 했다. 마을을 지나 통도사 공장으로 가던 버스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면 이 거리가 사람들로 넘쳐 났었다.

시간이 흘러 각 가정에 자동차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관광객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마트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서 통도사 주변으로 와서 먹고 시간을 보내다 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관광 상권이 줄기 시작했다. 이후 삼성전관도 공장의 기계화로 인해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활기를 띠던 신평거리도 점차 조용해져 갔다. 이후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곳에 잘 닦인 길이 생기게 되면서 관광객들은 더이상 옛 신평길을 지나서 가지 않게 되었다.



통도사에서 바라본 통도사로 올라오는 큰길. 우측(통도문화예술거리) 끝말이 있는 길이 통도사로 올라오는 구길. 좌측이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큰길.

현재 옛 신평길은 통도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재생관련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통도예술길로 만들어지며 예전의 영광을 찾아가고 있다.



(위) 넓게 새로 만들어진 통도사로 올라가는 길. 시외버스터미널이 이 길로 이전하고 넓게 새 길이 만들어져 운전자들은 이 길을 선호한다. / (아래) 통도사로 올라가는 옛날 길.

신평거리를 지켜 온 제일 오래된 주민들

세월이 흘러도 신평거리에는 50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가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신평마을의 최초의 속옷가게 비너스와 최초의 미용실 숙미용실이다. 신평마을 최초의 속옷가게는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지금의 슈퍼인 잡화점으로 시작했다가 속옷가게와 화장품이라는 두 가지 제품으로 줄이면서 2대를 이어오고 있는 비너스이고, 또 하나는 최초의 미용실이자 신평마을의 미용의 역사인 숙미용실이다.

2대로 이어지는 신평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최초의 속옷가게 ‘비너스’ 하옥자, 69세

Q 언제부터 이곳을 운영하셨어요?

“내가 25살이던 79년도에 신평마을에 결혼해서 여기로 와서 살았는데. 남편이 이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살고 있는 토박이야. 내가 이 가게를 시작한 지는 40년 되었거든. 이 거리에서 내가 제일 오래 장사를 했어. 그런데 나도 시어머니가 하던 가게를 넘겨 받은 거라서, 보자…, 어머니가 1950년대부터 장사를 시작했으니 그러면 70년 정도 되었네. 어쩌다 보니 2대를 걸쳐서 하고 있네.

당시에 어머니가 국제시장에서 물건들을 떼 오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던 잡화점이었는데 주말엔 통도사 오는 사람들에게 모자도 팔고 장날은 장터에 가서 팔고 했지. 그때 7, 80년대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 2000년도까지 많았지.”

Q 전관이 있을 때 장사가 잘 되었나 봐요.

“맞아. 삼성SDI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버스정류장 있는 곳에 길에 없었는데 길이 생기면서 여기 도로가 죽었지. 통도사로 가는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그리 다 가니깐. 예전엔 버스를 타고 통도사까지 걸어 왔는데 이제는 자



옷가게 '비너스'의 외관 / 인터뷰 중인 하옥자 사장님

가용 가진 사람이 많은 거야.”

Q 엄청 오래 운영하셨네요. 그럼 처음부터 장소도 이곳이었어요?

“응. 이곳이야. 옛날집부터인데 이 건물이 1950년대에 지어졌어. 이 자리에서 집이랑 가게랑 둘 다 했었어. 옛날에는 기와집이었고 1층 단층이었어. 지금 크기랑은 비교가 안 되지. 그때는 작은 한 칸짜리 가게였는데 점차 벽을 트면서 세 칸 방을 이은 게 지금 가게야. 지금은 내가 속옷이랑 화장품만 하고 있지만, 시어머니가 장사를 하실 때엔 수레에 다양하게 물건을 가득 실어서 옆에 신평장에 나가서 팔았어.

그때는 그냥 이름 없이 하시다가, 나중에 순지상회라고 이름을 내걸고 시작했대.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참 어른들이 현명하신 게 우리 시어머니, 아버지

가 그 당시에 사업자를 내었다. 내가 결혼할 때 이름이 순지상회 상호였어.

그 당시 삼성전관이 들어왔었는데 전관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가 바글바글했어. 전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기숙사에 7, 8천 명이 있었다고 했거든. 그걸 듣고 지금처럼 잡화점으로는 안 되겠다. 품목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줄이자 해서 장사를 바꾸었어. 그래서 모았던 돈으로 화장품 100만 원, 속옷 100만 원으로 준비해서 어머니한테 장사를 이어받아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야. 그 당시에 속옷만 팔았던 가게는 없었어. 이후에 내가 하다가 잘된다고 생각했는지 주변에서 비와이씨나 비비안이라고 가게가 생겼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나만 남아 있어.”

63년 된 미용실 신평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가게 ‘속미용실’ 정분금, 87세

Q 언제부터 이곳에서 미용실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23살에 시집을 여기 신평마을로 왔지. 삼성전관이 나보다 뒤에 왔어. 시집이 여기 옆에 초산인데 결혼하고 그냥 놀라고 하니 그래서 미용이나 배워 볼까 하고 부산에서 남포동 현대극장 앞에서 미용 공부를 하고 왔어. 그때가 23살인데 63년도부터 미용실을 시작했으니 올해까지 60년이나 했네.”

Q 신평마을에서 최초의 미용실이 아닌가요?

“아냐. 그때 여기 미용실이 한 개 있었고 내가 두 번째로 미용실을 열었어. 그때도 사람이 없었다가 삼성전관이 들어오며 사람이 많아졌어. 퇴근 시간 이쯤 되면 사람이 여기 앞에 엄청나게 많았어.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와서 이 거리에 있는 가게들 가서 밥이랑 술 먹고 했지. 버스가 이 길로 다녔어. 요새같이 자가용이 많이 없던 시절이라 그때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통근 버스가 있고 해서 많았어.”

Q 당시 미용실이 많이 없었을 텐데 어땠어요?

“그때는 남자 직원도 한 사람이 있어서 남자 머리도 하고 예식장도 하고 안 해본거 없어. 삼성전관 있을 때가 사람도 많고 재미있었지. 삼성전관에서



밖에서 본 속미용실

삼성미스 뽑을 때도 내가 가서 머리랑 화장도 다 해 줬는데. 그때 내가 해 준 사람이 삼성 미스가 되었잖아.

예전엔 여기 농협 예식장이 있었거든. 거기 결혼하는 모든 신부 머리는 내가 다 했고, 언양 울주군까지 다 가고 했지. 그때는 미용실이 많이 없으니깐 낮에 어떤 집에 여자들이 다 모이면 거기에 들어가서 머리를 다 해 주고 왔어. 옛날 여자들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 시댁 눈치 본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했는데 그런 여자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면 가서 머리해 주고 했지.

지금은 내가 늙어서 그렇지 젊을 때는 머리하는 걸로 낫발 날렸어. 그땐 직원도 3명이나 부리고 했어. 당시에 미용 자격 시험 치는 데서 감독을 10년도 넘게 했고, 머리로 작품도 다 내고 서울도 일본도 가고 했지. 일본 가서

상도 탔어. 86년도 일본을 처음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 나리타 공항에 내리니 주변이 전부 꽃이고 거리가 깨끗하고 해서 어째 이래 깨끗한 곳이 있나 했어.

대한미용사회 경남지부도 나랑 같이 7명이 창설했는데 지금은 회원이 300명이 돼. 그 당시에는 진짜 작았는데, 지부를 만들 때, 신평마을에 나랑 석계 사람 양산동 전체 7명이었거든. 우리가 지부를 만들 때 양산, 울산만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경상남도지회로 커졌어. 그때 창설한 사람 다 죽고 나랑 한 명, (총) 두 명만 남았어. 올해는 공로패도 탔지.”

Q 지금은 어떠세요?

“요즘은 장사도 가끔 하는데 머리 봉사를 많이 다녀. 어르신들이 있는 곳에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머리하지. 그래도 여전히 여기 미용실에 할매도 오고 젊은 사람들이 와. 요기 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손님들하고 머리 해 주고 하는데 뭐 다들 건강 챙기는 사랑방 같아.”



(위) 숙미용실을 소개하는 정분금 어르신 / (아래) 정분금 어르신이 받은 상패와 공로패.

7. 삼성전관

신평마을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삼성전관을 계속 들을 수 있다. 삼성전관은 흑백 TV 브라운관을 만드는 공장으로 신평마을 근처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에 1970년도에 지어졌다. 공장이 지어지고 나서 이곳에서 일하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공장과 신평마을은 가까워 삼성전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신평마을에서 집을 얻어 살게 되며 생활 반경이 되었다. 공장과 마을을 다니는 버스도 생기면서 당시 신평마을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마을이 되었다. 하지만 점차 공장 자동화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원공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신평마을에도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삼성전관이 있었던 그 시기가 마을이 북적이던 시기였고 그래서 지금의 마을 주민들은 그때의 활기찼던 마을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삼성SDI는 삼성전자에 납품할 디스플레이(브라운관)를 제조하기 위해 일본 NEC사와 합작으로 지난 1970년 1월에 설립된 삼성NEC(주)가 모태이며 삼성전관공업과 삼성전관으로 이름을 바꾼 뒤 1999년부터 지금의 삼성SDI가 되었다.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SDI 울산사업장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산실로 1970년 5월 227만㎡(약 69만 평)의 넓은 부지로 준공됐다. 창업자인 고 이병철 전 회장이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가 헬기를 타고 오면서 신불산 등 영남알프스를 낀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매료되어 이 장소를 직접 둘러본 뒤 공장

을 지었다고 한다.

SDI는 초기 브라운관만 생산하다가 이후 PDP, LCD, 아몰레드(AMOLED) 등으로 분야를 넓혀 갔다. 2000년부터는 리튬 이온 배터리 기반의 2차 전지 사업과 전기차용 중대형 전지와 ESS용 전지 공장까지 숨 가쁘게 주력사업 수종을 다각화해 왔다.

“90년대 초중반 브라운관 사업이 한창 호황일 때는 직원 수가 1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다”며 “인력이 부족해 울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 1987년에 입사했던 유흥진(51) 과장

SDI는 이후 삼성그룹과 롯데그룹과의 빅딜로 케미칼 사업 부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배터리 사업과 전자 재료 사업 부문만 남게 되었다. 특히 울산 사업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은 SDI의 주력이자 삼성그룹의 주력 부문으로 육성되었고 공장 자동화, 주요 사업의 이동 등으로 인해 삼성전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며 신평마을의 사람들도 점차 줄기 시작했다.

삼성전관의 연혁

1970년 1월 삼성 NEC 설립

1974년 삼성전관공업 사명 변경

1984년 삼성전관 사명 변경

1999년 삼성SDI 사명 변경

8. 보광중학교

신평마을에서 유일한 사립중학교.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신평마을의 주민들 대부분이 이 중학교를 졸업했다. 보광중학교의 전신은 통도사 경내에서 승려들의 교육·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던 2년 과정의 명신학교였고 뒤이어 중학교 과정의 지방학림이었다. 명신학교는 현재의 하북초등학교로, 그리고 지방학림은 통도중학교에서 다시 보광중학교로 이어져 온다. 이후 보광중학교는 1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중학교 1층에 기념관을 설립하였다.



현재의 보광중·고등학교. 지금은 고등학교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위) 보광중학교 역사관 / (아래) 배영태 교장 선생님이 보광중학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명신학교 시절 1906. 4.1.~1910.

승려에게 필요한 불교학과 경전 외에 신교육에 치중하여,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와 시대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중 불교 시대를 선도할 교계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가 따로 없었고, 경내의 화엄전과 만세루의 큰방을 교실로 사용하였다.

명신 학교는 몇 해 되지 않아 사립 통도사학림 (4년제)으로, 사립 하북보통학교, 하북 공립 보통학교, 신평 공립 심상소학교로 이어져 지금의 하북초등학교



1906년 명신학교 시절, 통도사 내에 위치하여 승려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교로 그 맥을 이어왔다. 신평마을의 신교육은 통도사에서 시작되었다.

명신학교 졸업생으로는 뒤에 통도사학림과 지방학림(중학교 과정)의 교사에 이어 통도 중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신태호 선생 한 분만 알려져 있다.(1908.4.1. 입학 1910.3.11. 졸업)

초등학교 과정 위에 중학교 과정이 있는 만큼 후일 1916년 4월 1일에 개교한 통도사 지방학림(중학교 과정)이 있게 한 밑바탕이 되었다.

통도사 지방학림 시절 1916.04.01.~1925.

906년 4월 1일에 통도사에서 시작된 2년 과정의 명신학교는 1916년 4월 1일에 창설한 통도사 지방학림으로 이어진다. 통도사 지방학림은 당시 승려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으로 수학 연한 3년의 중등 교육 기관이었다. 교실은 통도사 경내의 천자각을 이용하였으며, 초대 교장은 김구하, 당시 통도사 주지가 맡았으며 학감에 신태호, 교사로는 김월제, 정택, 최병호가 재직했다. 통도사 지방학림 출신으로 서울에 유학 중이던 오택언이 통도사로 내려와 1919년 3월 13일에는 신평시장에서 독립 만세 사건을 주도하였다.

지방학림의 폐지는 1925년경으로 추정되며, 그 후 1934년 4월 1일에 사립 통도중학교로 새롭게 개교하였다. 학교 건물은 경내의 요사나 전각이 아닌 독

립된 건물과 대·소 운동장을 갖추었으며, 지금의 통도사 일주문 밖이다. 당시 통도중학교는 매년 총독부 산하 경상남도지사의 인사를 받아 운영하였으며 학생은 승려 및 신도의 자제들이었다. 통도중학교는 1944년 1월 21일 제5회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그해 3월 1일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되었다.

광복 이후 통도사와 범어사에서 당시 화폐 기준으로 일천만 원을 출연하여 불교 경납교무학원을 설립하고 1946년 7월 보광초급중학교의 설립인가를 미군정청 문교부에 신청하여 같은 해 9월 5일에 인가를 받았고, 그로부터 열흘 뒤 정식 개교하였다. 당시 교사와 운동장은 통도중학교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각 학년 3학급(1학급 50명) 총 150명으로 출발하였다. 교명은 '널리 빛을 밝혀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는 뜻의 보광(普光)으로 하였으며, 당시 교훈은 신(信)·성(誠)·경(敬)·애(愛)였다.

사회 교화와 포교를 위한 종교 교육도 일부 있었으나 공민(公民)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남자중학교로 재출발하였으며(실제는 여학생도 있었음), 1961년 10월 30일에는 통도사 구내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1975년 2월 27일에 영산학원이 설립되어 이전 원효학원이 경영하던 보광중학교를 인수 경영하고 있다. 2000년 6월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아 참전 학도병 가운데 졸업장을 받지 않은 15명에 대해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보광중학교 입구에 있는 소나무. 현재 보광중학교 자리는 솔밭이었고 학교가 건립되며 두 그루를 남겨 두었다가 지금은 한그루만 학교를 지키고 있다.



보광중학교의 회관. 이곳이 있던 곳은 예전 신평마을의 문화회관으로 활용되었던 공간으로, 이후 학교의 체육관으로 변경이 되었다.

배영태 교장 선생님

“저는 원래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보광중학교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 서울과 달리 논밭이 있고 너무나 조용한 시골이더라고요. 학교 옆에 있던 시내의 다방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죠. ‘학교를 갈 것이냐.’ 그리고 학교에 들어와 화학 선생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교장 선생님이 되었죠.

제가 화학 전공인데 87년도에 서울에서 자동차 개발 공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서울역 앞에 회사가 있어서 일하는데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하면 밤 11시에 퇴근하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여기 보광중학교에 교사 일이 있다고 해서 내려왔어요.

그때가 2월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와서 논길을 걸어오는데 정문에 오니깐 지금 정문 앞에 소강당이 있었고 겨울바람이 부는데 창문이 덜덜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적응하겠나 생각이 들었죠. 신평마을엔 연고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학교 옆 주차장 앞에 코리아 다방이라고 있었어요. 거길 가서 두 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최첨단 문화가 있는 도시 서울에서 생활을 했고 친구들도 다 서울에 있는데 여기는 정말 시골이었으니깐요.

고민을 엄청 하다가 그때 다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신평마



배영태 보광중학교 교장 선생님

을은 뭐가 좋은지. 그러자 그 사람이 여기는 영축산에 통도사도 있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사람도 좋죠.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물, 공기, 사람이 좋다니 그럼 한번 살아보자 하고 학교로 갔어요. 그땐 여기에 하숙집도 없었어요.

방 한 칸도 어떻게 얻었냐면, 삼보아파트였는데 부부가 살았어요. 아들이 있고 큰 거실에 방 두 칸밖에 없는데 방 하나를 내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평마을로 오게 되었어요. 제가 왔을 때가 보광고등학교에서 1대 교장이 계시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애들 가르치게

되면서 학교에 정을 붙여 갔는데 제가 학교들 점점 관심 있게 들여다 보니 진학이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진학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놓어촌 관련 입학 자료도 모으고 서울에 있는 입시기관 소장들을 불러서 양산 전체 입시 설명회도 하고 하니 자연스럽게 고3 아이들의 진학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진학 관련으로 애착이 가게 되니 고3 담임을 20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학교도 적응하게 되고 결혼도 하고 저한테 신평마을이 고향이 된 거죠. 젊은 시절엔 애착이 없었어요. 신평마을이 경치는 좋지만 29살 젊은 나이에 놀 거리가 많이 없었던 거죠. 극장도 있어야 하는데 양산에 있으니 버스 타고 나가면 양산까지 1시간 걸리고, 제가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로 바텐더도 2년을 했거든요. 칵테일을 만들려고 해도 재료가 없었어요. 양산다방에 가려고 해도 1시간이 걸렸었어요.

제가 신평마을에 애착을 가지게 된 거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집안이 어려워서 돈을 벌려고 아침마다 신문 400부를 돌렸어요. 방 두 칸인데 위에 천장을 뚫어서 형광등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방에서 살았답니다. 부모님과 4형제, 이렇게 7명이 살아서 저는 독서실에서 먹고 자고 했었어요. 잠을 두세 시간 자고 아침에 신문 돌리고.

대학생 때도 아르바이트를 바텐더를 했는데 저녁 6, 7시에 가서 12시까지 하면 여관 잡아 주었거든요. 거기서 자고 나와서 학교 공부하고

저녁에 일하고 했었어요. 당시에 힘들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했는데, 교수님은 저보고 공부를 더 하라고 하셨거든요. 경북대에서는 야간대학이 없으니 돈 벌려고 하니 안 되어서 결국 공부를 못했죠.

결국 제가 못 한 공부를 학생들한테 투자를 했죠. 고향인 대구에 안 올라가고 여기서 우리 학생들 진학시키고 했는데, 고등학교 8년 연속 서울대를 계속 보냈답니다. 최초로 서울대 의대도 보냈어요.

그렇게 학생들을 키워 보자 했는데 30년이 되었고 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있는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내려가 봐라 해서 중학교로 오게 됐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도시보다 여기 신평마을이 좋아요. 여기 사람들은 전부 보광중학교를 다 나왔어요. 결국은 마을에 아는 지인들, 내 조카가 내 학생이 될 수 있으니 내 아들딸이 다닐 수 있는 좋은 학교로 만들자는 게 목적이 되어 버렸어요.

9. 마을을 움직이는 동력

“신평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소사에는 마을공동체들의 활동이 연결되어 있다. 마을의 제일 큰 행사—당산제를 주관하고 마을의 전체 일들을 진행하는 마을 이장단, 이장단과 함께 마을의 대소사의 음식들 장만, 환경 정비부터 세세한 일들을 하는 새마을 부녀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로잔치 그리고 신평마을의 최초 놀이터를 건립했던 마을 청년단, 마을의 방법과 재해를 담당했던 의용소방대 등이 신평마을을 움직이고 있다.”

- 신충길 선생님

1) 마을 이장단

신평마을의 4개 마을(동·서·남·북) 이장들이 활동하는 이장단. 신평마을의 가장 큰 행사인, 매년 음력 3월 3일 치루어지는 당산제부터, 통도사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달집태우기가 메인인 정월대보름 행사, 하북면민의 날, 마을 경로잔치 등 마을의 모든 대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또한, 노인들의 비중이 높은 시골 마을인 만큼 각 마을들의 주민들의 상황들을 매일 확인하고 주민들과 면사무소, 주민센터 등 기관과의 교량 역할이라는 주요한 일을 하고 있다. (동쪽 마을 이장 박춘길, 서쪽 김진호, 남쪽 김만재, 북쪽 진우종)

남부마을 이장
김만재 1954년생



Q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마을은 예전에 우시장이 있었던 소전골로 대표돼. 우리 마을의 전반적인 일들을 다 하고 남부 주민들의 일들을 내가 맡아서 하고 있어. 이장 전에 젊을 때는 의용소방대도 청년회도 하고 그랬어.”

Q 신평마을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 마을에는 도둑이 없어. 또 신평마을은 주민들이 화합이 잘 되고 서로 전부 다 아는 사이니깐 소통이 잘 돼. 남부마을은 동서남북 중에서 면소재지 중에 중심이 되는 곳이기도 해.”

Q 앞으로 우리 마을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마을이 깨끗하지만 헌집 같은게 있어서 벽화라던지 집을 활용할 것이 많아. 눈에 보이지 않는 공터가 있는데 올해 연말이나 소공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어. 잘 마무리되어서 깨끗한 공간이 생기면 좋겠어.”

북부마을 이장
진우종 1955년생



Q 북부마을의 특징을 알려주세요.

“신평마을에서 북부마을이 신평의 중심이에요. 여기 소소카페에서부터 통도사 입구까지 북부 범위가 매우 크죠.”

Q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이장으로서 관공서와 주민들의 교량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사무소에서 어떤 공지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일일이 전달하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연락을 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마을을 돌아보며 문제점이 없나 확인을 하죠. 또 돌아가면서 마을 당산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Q 앞으로 마을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신평마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SDI 삼성전관이 다시 활성화되고 마을 주위에 들어와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요. 교육환경이 좋은

신도시로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

공기도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식사하고 통도사까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걸리는데 운동도 하고. 마을이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농어촌 도시재생한다고 하지만 그건 인구가 느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 같아요. 인구가 늘려면 아파트나 새로운 놀이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Q 이장도 임기가 있나요?

“이장은 5년입니다. 통상 4년 정도 하고, 10년도 하지만 우리동네에서 일 잘 할 수 있는 후임자가 나타나면 넘겨줍니다. 이장일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노인회 관련 일을 다 해야 합니다. 노인이 65명 정도 되는데 이장으로서 해야 하는 일의 70프로는 노인의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동부마을 이장
박춘길 1963년생**



Q 동부마을의 특징을 알려 주세요.

“동부마을은 특징은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파출소, 농협, 산림항공청, 산림청 등 기관들도 많고요.”

Q 이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지역주민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면사무소에 이야기하면 맞춤형복지팀에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은 법으로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그 외에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계셔서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발굴을 하고 면하고 소통해서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어르신들 1년에 한 번 놀러가는 행사랑 우리 마을에서 경비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식사 대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장으로 7년차 하고 있어요.”

Q 이장님으로서 애로 사항이 있나요?

“민원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아.”

Q 앞으로 마을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마을의 비전은 인구가 늘어야 해요. 인구가 늘려면 아파트가 들어서야 하는데 중저가 아파트가 들어서서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학생 인구수도 증가하고 지역의 상권도 살 것 같아요.”

**서부마을 이장
김진호 1963년생**



Q 서부마을의 특징을 알려 주세요.

“서부마을은 신평 4개 마을 중에 공동주택이 없고 단독, 개별주택이 많아서 낙후가 된 것이 많습니다. 옛날 건물들이 많아요. 또 공지사향이 있으면 아파트 같으면 방송하면 집마다 다 전달이 되는데 마을이 퍼져 있으니 다 다니면서 알려 줘야 합니다.”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 치안, 이런 기관은 동부에 있고, 여기는 예전에 변화가 쪽이라서 유흥가가 많아요.”

Q 어떤 일을 하시나요?

“다른 이장이랑 비슷한 일을 해요. 해외 나간 이장이 제 후배인데 돈벌이 하려고 나간다는데 선배가 되어서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이장을 맡았어요. 좀 웃기죠?”

면사무소나 시에서 내려오는 공 지사향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이장 회의

한 달에 2번하고 주민들에게 단체문자로 공유하는데, 연로자들은 문자 읽기도 쉽지 않아서 전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면에서 저소득층의 지원이 있는데 이걸 주민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장들보고 홍보하라고 해요. 그런 대상자들을 알려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개인 정보 공개라고 안 알려 줘요. 아무리 이장이래도 그런 건 잘 모르죠. 방법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또 마을 축제나 행사들 하고, 마을 경비 회계 정리 하고, 1년에 한 번씩 개발 위원회 회의도 진행합니다. 봄 되면 퇴비도 신청받아서 나누어 주기도 하죠.

Q 마을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마을이 관광지여서 관광으로 장사를 혜택을 받았는데 어느새 다들 자가용으로 여기를 왔다갔다해 버리니 장사가 안 됩니다. 우선 장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엔 삼성SDI 근방에서 사람들이 방을 얻고 많이 살았는데 삼성SDI가 다 사라지고 학생들도 공부 때문에 부산, 울산 다 나가고 나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생산공장이나 들어서면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텐데 여기 통도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면서 공장도 못 들어오죠.

통도사가 있으니 절하고 함께 마을이 상생하면 좋겠습니다. 마을에 차 문화 축제나 가을 문화 축제 등이 많은데 통도사와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평 중앙길이 평평하게 보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통도사까지 가는 길이 울퉁불퉁해서 하이힐 신은 사람들이랑 애들 넘어지면 큰일 나요. 노인들은 휠체어나 수레들 잘 끌고 다니는데 여기선 못 끌고 다니고 있어요. 또 주차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현대식으로 개량하면 좋겠어요. 시장이 현대화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자주 오지 않을까요.”

2) 새마을부녀회

하북면 내의 19개의 마을부녀회장들이 있다. 신평마을도 마을 이장단과 같이 4개의 부녀회장들과 전체 하북면부녀회장이 함께 한다. 이장단과 함께 마을의 큰 대소사를 관여하며 이장단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입장이라고 하면 새마을부녀회는 예를 들면 당산제, 정월대보름, 경로잔치 등의 음식들을 만들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큰 기여를 한다. 또한, 마을 환경 미화에도 큰 역할을 하는 편이다. 오히려 요즘은 이장단의 활동보다 부녀회의 역할이 더 많아져 있다.

“새마을부녀회는 추석, 설 불우이웃돕기 같은 행사를 비롯해서 노인들 경로잔치, 정월대보름부터 시작해서 당산제, 삼복 때 복날을 하루 정해서 어르신들한테 대접하고, 하북면민의 체육의 날,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드실 김장 봉사까지 다 한다. 마을의 모든 일들을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된다. 부녀회가 하북면에만 18개인데 신평마을엔 4개의 부녀회장이 있어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부녀회장이 있어요. 마을이 형식상 나누어져 있지만 마을회장이 있고 부녀회원들이 15명에서 20명씩 있어요. 마을 이장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일하지만 부녀회들은 순수봉사로 일한답니다.”

- 하북면회장 황경숙



모든 행사에는 초록색의 새마을부녀회 유니폼을 입고 진행한다.



새마을 부녀회 (남부회장: 김자용, 서부회장: 김미희, 하북면회장: 황경숙)



마을의 교육행사



마을의 환경정비

3) 신평마을 청년회

신평마을의 청년들(20~40세 전후)이 모여 마을의 중요 행사를 운영했다. 이장단, 부녀회 등 다른 단체들과 더불어 마을의 환경을 담당한다. 또한 마을의 경로잔치도 진행했다. 주요 활동 중에 1970년대 말 지금의 통도사어린이집이 있는 장소에 어린이 놀이터를 최초로 세웠는데 이때 청년회가 주로 담당을 했고 그 기념비가 세워졌다. 그 기념비의 필체는 당시 청년회의 소속이었던 신충길 선생님께서 직접 그린 비이다. 건물들의 이전과 변화로 인해 사라진 줄 알았지만 2023년 마을 조사 중 발견하였다.



신평마을 청년회는 마을에서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메고 운구를 담당하기도 했다.



(좌) 신평청년회 비석이 있는 통도사 어린이집. 이곳은 예전에 우시장—소를 파는 시장이 있던 자리였다.
 (우) 1980년 신평청년회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기념비. 현재 시립 통도사 어린이집 뒤뜰에 있다.

“신평청년회는 좀 오래됐어요. 마을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라 다 친구였고 남부, 북부 관계 없이 놀아도 같이 놀았어요. 신평청년회는 그때는, 마을 청소를 한다든지, 동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상여 메는 것도 마을 청년회에서 맡아서 했어요. 마을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항상 상여를 메고 운구하고 그랬어. 신평 청년회에서 마을 단위로 신평에만 상여를 메고, 동네에 국한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청년회가 조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 전체에 청년회가 필요하다 해서 합쳐져서 하북청년회가 되었어.”

- 신충길 선생님

4) 의용소방대

5, 60년대부터 마을의 방범 활동을 담당했던 단체. 마을에서 화재 등이 생기면 사람들을 구조하고 진압하는 역할을 했다. 의용소방대가 사용하던 사무실이 신평장의 건물의 2층에 있었으나 그곳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신평마을만세운동 기념구역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의용소방대가 주관하는 행사는 정월대보름에 하는 달집태우기이다. 당산제와 함께 마을의 제일 큰 행사로 이장단들이 함께 하지만 달집태우기가 있어서 불의 위험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중심에서 진행한다.



하북면의용소방대 건물. 현재는 폐건물로 이후 신평마을 경제운동 기념구역으로 바뀔 예정이다.



2023년 2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풍경. 달집태우기 행사는 음력 1월 15일 통도사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불이 다루어지기 전에 의용소방대가 중심이 되어 마을 이장단, 부녀회단 등 마을의 동력들과 함께하는 큰 행사 중의 하나이다.



10. 통도사

신평마을은 통도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마을이다.

신평마을을 대표하는 대표명소를 이야기하면 통도사이고, 신평마을의 옛 이름인 순지리-연못이 통도사 안의 구룡지라는 이야기도 있다. 신평마을은 통도사를 찾는 관광객들에 의해 마을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했었다.

그렇다고 단순히 관광객들을 위한 곳은 아니다. 통도사 입구에 있는 무풍교 아래 무풍지는 5, 60년대 아이들이 놀았던 놀이터였고 여름이면 지금의 워터파크, 겨울이면 아이스 링크가 되기도 하고 김석배 선생님이 마을의 어르신들을 다 모셔두고 경로잔치를 벌였던 장소이기도 했다.

2018년 통도사 입구에서 통도사로 이어진 소나무길인 무풍한송로가 전국 아름다운 숲 정원에서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기도 했고, 같은 해 유네스코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등재가 되는 등 통도사는 여타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답고 다양한 매력을 가진 사찰이다.

최근엔 통도사가 6.25 전쟁 당시 부산 동래에 있던 31육군병원의 분원이 통도사에 설치되어 육군병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통도사가 육군병원 역할을 했었다는 것은 6.25 당시에 통도사에 살았던 스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구전으로만 전해 오던 이야기였고 국방부에는 공식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9년 용화전 미륵불소좌상의 복장에서 나온 연기문에서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연 3,000명의 부상병이 통도사에서 치료받던 중 전각과 불상의 훼손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는 내용이 발견되면서 한국전쟁 당시 부상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밝혀졌다. 이후 통도사는 불교 사찰 최초로 2021년 11월 1일 현충시설물로 지정이 되었다.

신평 만세 운동에 이어 한국전쟁까지 나라가 어려울 때 통도사가 나서서 지키고자 했던 모습은 호국불교로서의 제 역할도 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통도사 입구에 있는 무풍지와 무풍교. 무풍지는 5-60년대 아이들의 놀이터였으며 김석배 어른신이 경로잔치를 벌였던 곳이기도 하다.



(위) 양산 통도사의 현충시설물 지정 기념 현수막이 불이문 내에 걸려 있다. 통도사는 한국전쟁 당시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2021년 11월 1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찰 현충시설물로 지정이 되었다.
 (아래) 최경숙(통도사 적멸도량회 불교문화해설 봉사자)

1) 통도사 창건 및 통도사 사명(寺名)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15년(서기 646년) 자장율사(慈藏律師)께서 창건한 도량으로 현재 개산²⁾ 1378년이 된 전통 사찰이다. 『삼국유사』, 『사바교주 계단원류 강요록』에 의하면, 자장율사께서 서기 643년 당나라 유학 당시 문수보살의 현신으로부터 하사받으신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 100과와 금란가사 1벌, 당나라 태종으로부터 받은 대장경, 화엄경 완역본 등을 지니고 신라로 귀국하였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3분 하여 1분은 서라벌 황룡사 9층 목탑에, 1분은 울산의 태화사에 봉안하고, 마지막 1분의 부처님 진신사리와 부처님 금란가사, 대장경은 통도사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뿐만 아니라 최초로 대장경을 봉안한 사찰이다.

통도사는 삼보사찰(三寶寺刹) 중, 팔만대장경을 모신 법보종찰 해인사, 고려 시대 보조국사 이래 16분의 국사를 배출한 승보종찰과 함께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종찰로서 불(佛) 법(法)·승(僧) 삼보(三寶) 중 최고의 위상을 지닌다.

통도사란 이름에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차산지형통인도영축산형(此山地形通印度靈鷲山)’으로 통도사가 있는 영축산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

2) 개산(開山)이란 ‘산문(山門)’을 여는 일, 즉 절의 창건을 의미한다.

경을 설한 인도 마가다국 왕사성 영축산과 통한다(같다)는 의미를 지니며, '위승자통이도지(爲僧者通而道之)'에서는 모든 출가자는 근본계율 도량인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계(戒)를 받아야 그 정통성이 인정되며, '통만법도중생(通萬法度衆生)'은 만법을 회통하여(깨달음을 얻어)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는 자비의 의미를 지닌다.

통도사는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세계 문화유산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자장율사 | 자장(慈藏, 590년경~658년경)은 7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신라 승려로, 불교가 신라 국교로 자리 잡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는 특히 계율(戒律)을 중시하고 강조하였는데, 신라의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승려들의 규범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면서 불교 교단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 황룡사(皇龍寺) 9층 목탑 건립을 주도하면서 신라가 불국토(佛國土)라는 관념을 널리 퍼뜨렸고 통도사를 창건했다. 불교를 호국 이념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2) 삼성 반월교

삼성 반월교는 통도사의 피안³⁾ 교로서 마음 심(心)자 모양을 형상화한 아름다운 다리로 1937년 당시 통도사 주지 경봉당 정석 스님께서 건립하였다.

다리에 난간이 없이, 네 개의 교각이 만든 세 개의 작은 홍예(虹霓) 무지개와 다리의 상판이 또 하나의 큰 홍예를 이루고 있는 돌다리이며, 세 개의 별과 한 개의 반달 —삼성지하반월(三星之下半月)로 심(心)자 형상을 보여 준다. 상징적 의미는 일체 번뇌를 여의고 부처님께 마음을 모아 건너는 다리, 즉 피안교의 종교적 상징성을 지닌다. 다리에 난간이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반월교



3) 피안(彼岸). 사바세계 저쪽에 있는 깨달음의 세계.

3) 가람각

가람각은 가람을 수호하는 신중을 모신 전각이다. 가람신은 우리 민족의 고유 민속신앙인 토지신이 불교에 수용되어 가람을 지키는 신중이 되었다. 가람신중은 불교의 팔부성중 가운데 마후라가를 모시며, 사찰의 경외 지역에 있다. 통도사 가람각은 가람신중 탕화를 안치하고 ‘밀호가람성신지위(密護伽藍成神之位)’ 패(牌)를 모셨다. 본래 불교의 신중이 아닌 우리나라 민속신앙인 토지신을 모시는 것으로 경외에 위치해야 하지만 담장을 밖으로 조금 밀어내 위상을 낮추어 천왕문 아래에 위치하게 하였다.

가람각 / 가람각에 모셔진 토지신



4) 다보탑 벽화—견보탑품도단(見寶塔品圖)

하로전 영산전(靈山展) 서쪽 내벽을 차지하고 있는 다보탑 벽화는 『법화경』 ‘제11품 견보탑품’ 내용을 그린 불화이다. 석가여래가 영축산에 법화경을 설법하실 때 다보여래가 다보탑과 함께 용출하여 석가여래의 설법이 진실함을 증명하시고, 탑 안 나란히 앉으신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탑신에 탑 문이 열린 내부로 석가여래와 다보여래가 나란히 앉으신 모습—이불병좌(二佛竝坐) 모습을 볼 수 있다. 탑의 주변에는 보살과 제자들이 시립하여 있다. 탑 둘레는 온통 영락과 풍경이 장엄하고 하늘에 오색구름이 휘날리고 있다. 현재 다보탑 벽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벽화이며 영산전 벽화들과 함께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하로전 영산전 서쪽 내벽의 다보탑 벽화.



5) 반야용선도—용선접인도(龍船接引圖)

극락보전 후벽에 험한 바다를 건너 극락세계로 향하는 반야용선도 불화가 있다.

반야용선도는 용선으로 묘사한 배에 아미타불과 아미타불 권속이 왕생자를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정토로 인도해 가는 모습을 그린 불화이다.

배 중앙에는 지붕 위에 보탑의 지붕 위 상륜부와 같은 장형의 집이 있고, 배의 머리-용머리에는 인로왕보살이 합장을 한 모습으로, 꼬리 쪽 용미에는 지장보살이 육환장을 들고 왕생자들을 인도하며, 배 안에는 조선시대 복장을 한 다양한 계층의 왕생자들이 합장하고 있다.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는 왕생자들의 염원이 간절해 보인다. 그런데 모두 앞으로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있는데 용미 쪽에 지장보살 앞 일곱 번째 한 남자는 뒤를 돌아보고 있다. 왜 뒤를 돌아보고 있다. 왜일까? 아마도 현세에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보는 것은 아닐까.

극락보전 후벽에 그려진 반야용선도.





6) 구룡지(九龍地)—통도사 창건설화

구룡지는 통도사 창건설화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자장율사께서 이 통도사를 창건할 당시 이곳은 습지(늪, 연못)였다.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청량산) 문수보살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문수보살이 승려로 변화하여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두골, 치아, 지절 4) 등) 일백과와 부처님 금란가사 한 벌을 주면서 자장율사에게 말했다. “그대는 말세에 계율을 지키는 사문(沙門)이 될 것이므로 내가 진신사리를 그대에게 주노라. 너희 나라 남쪽 축서산 기슭 신지에 살고 있는 아홉 마리 독룡이 독해를 품어 곡식을 상하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대가 그 용이 사는 연못에 금강계단을 쌓고 이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면 삼재(三災)를 면하게 되어 만대에 이르도록 멸하지 않고 불법이 오랫동안 머물 것이다.”

당나라에서 돌아온 자장율사가 축서산 신지(연못)의 용들을 설법하여 용들을 제도하였다. 자장율사에게 항복한 아홉 마리 용들 중 다섯 마리는 ‘오룡동(五龍洞)’으로, 세 마리는 ‘삼동곡(三洞谷)’으로 갔다. 오직 한 마리 용이 그곳에 남아 통도사를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하므로 자장율사가 연못의 한 귀퉁이를 메우지 않고 남겨 그 용을 머물도록 했다고 한다. 그곳이 지금의 구룡지이다. 전해지는 다른 설화는 자장율사가 연못을 메워 금강계단과 통도사를 건립하

4) 지절(肢節). 팔다리의 관절뼈.

5) 사문(沙門). 부지런히 모든 좋은 일을 닦고 나쁜 일을 행(行)하지 않는 사람의 뜻으로, 머리를 깎고 불문(佛門)에 들어가 오로지 도를 닦는 사람. 또는 곧 출가한 승려를 달리 이르는 말.

고자 아홉 마리 독룡들에게 연못을 떠나 줄 것을 요구하자 용들이 이를 거부했다. 자장율사가 종이에 ‘화(火)’를 써서 하늘로 날려 보내고 법장으로 연못을 휘저으니 물이 끓기 시작했다.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세 마리 용이 동쪽으로 달아나다 바위에 부딪혀 죽었는데 그 바위를 ‘용혈암(龍血岩)’이라 부르며, 또 다섯 마리 용은 통도사 남서쪽 너머 골짜기로 달아났는데 그곳은 ‘오룡곡(五龍谷)’이라 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 용은 눈이 멀게 되어 자장율사께 금강계단을 수호하겠다고 간청하여 자장율사가 그 용이 살도록 이 연못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또 다른 설화에서는 대웅전 동쪽 계단 좌우에 구름 모양의 소맷돌과 용꼬리 모양 답도(踏道)와 서쪽 구룡지 한 마리 용을 연결하여 조감하면, 통도사 대웅전은 자연스럽게 반야용선을 상징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을 품고 있는 구룡지에는 아직도 용 한 마리가 머물면서 통도사를 수호하고 있다고 한다. 이 구룡지는 너댓 평 넓이에 깊이 또한 한 길도 채 안 되는 조그마한 타원형 연못이지만 아무리 심한 가뭄이 와도 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

7) 달마도

통도사 상로전 응진전 남쪽 외벽에는 ‘달마도’ 벽화가 있다. 19세기 말 석옹 철유스님(화승, 1851~1917년)이 그린 달화도이다.

달마대사(중국 선종의 초조)는 맷방석 위에 옆모습을 보이며 앉아 혜가 대사(중국 선종 2조)를 향해 발우를 건네고 있다. 달마대사의 예리한 눈과 짙 다문 입에서 대사의 태산 같은 선기가 느껴진다. 통도사 달마도는 인물의 비균형적인 구도와 사실적인 묘사, 부분적인 붉은 색채 사용, 유려한 필선 등이 뛰어난 벽화로 평가받는다. 선화의 백미, 사찰벽화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벽화는 달마대사 제자인 혜가 대사에게 발우를 전하는 전법도로 전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달마대사가 시자로부터 차공양을 받은 불화라는 다른 주장이 있다.

통도사 상로전 응진전 남쪽 외벽의 달마도 벽화.



8) 호작도(虎鵲圖)

해장보각 동쪽 외벽에는 호작도가 그려져 있다. 호작도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새해를 맞아 길상의 의미를 지닌 그림이다. 중국에서는 희보(喜報)라는 길상을 표현하기 위해 표범과 까치를 그린다. 표범의 중국어 발음이 報와 같고, 까치는 기쁨을 주는 길조로 희작(喜鵲)이라 부르는데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호랑이를 대체하여 그리며,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그림으로 사찰에서 조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해장보각 동쪽 외벽의 호작도.



9) 대웅전과 금강계단—자비보탑(慈悲寶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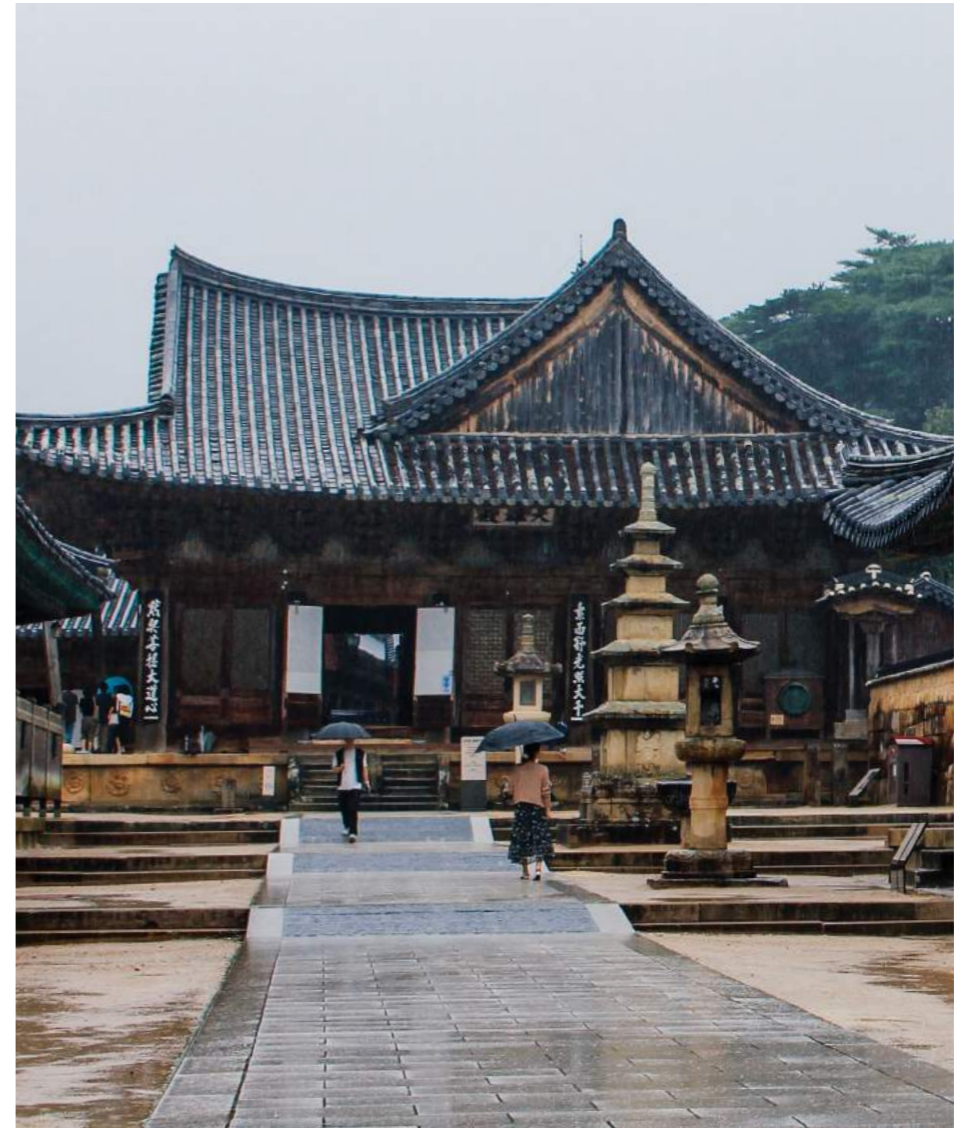
대웅전과 자비보탑을 금강계단 일원이라 하며 국보 290호이다. 신라 선덕여왕 646년 자장율사가 창건하였고, 현재의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조선 인조 때(646년) 우운당 진희대사가 증건한 것이다. 단, 연화대 축대와 계단 문양은 최초 창건 당시의 석물로 짐작하고 있다.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대웅전에는 불상이 없다. 통도사 대웅전 사면(四面)에는 다른 이름의 편액(현판)이 걸려 있다. 동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전각을 의미하는 대웅전, 남쪽에는 불제자들에게 수계(受戒)를 하는 장소인 수계단을 의미하는 금강계단(흥선대원군 필적), 서쪽에는 통도사의 창건 정신이 화엄경에 근간을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대방광전(흥성대원군 필적), 북쪽에는 석가세존의 진신사리를 봉안 곳임을 의미하는 적멸보궁의 편액이 있다.

대웅전 지붕은 팔작지붕 두 개를 직교한 T자 지붕, 지붕 막새기와는 백자연봉장식으로 장식되었고 철기와 지붕 위에는 청동찰간대(찰간대와 청동보주)가 설치되어 있는 부처님의 보궁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웅전 내부 우물천장의 목단 모양, 국화 모양은 극락을 연상하게 하며, 동쪽 대웅전 편액 아래 두장의 꽃살 문양은 그 조각이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다.

금강계단에 봉안되어 있는 진신사리탑(자비보탑)은 2단의 기단 위에 종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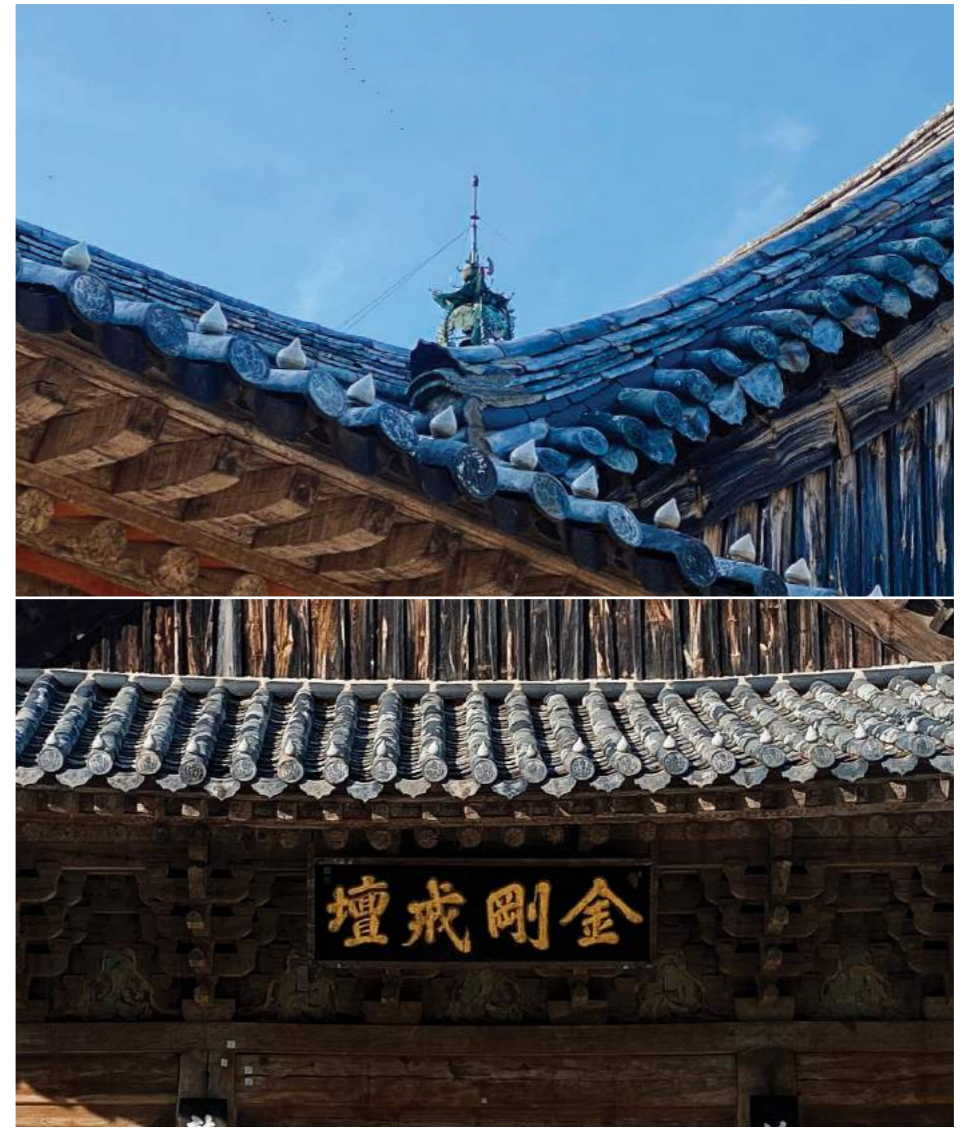
의 석종을 봉안한 형태이다. 아래 기단에는 벽 사이에 다섯 여래상과 스물여덟의 천부상을 부조하였고, 위 기단에는 비천상이 부조되어 있다. 위 기단 위에 복련대와 앙련대를 놓고 그 위에 종형사리탑을 봉안하였다. 종형사리탑 남쪽 면에는 향로 문양, 북쪽 면에는 위패 문양이, 동서 양쪽 면에는 비천상이 부조되어 있다. 통도사 금강계단은 창건 이래 수차례 중수가 있었고 석조물 일부는 창건 당시 것으로 추정된다.



통도사 대웅전.



금강계단



(위) 지붕 위에 청동보주가 있다. / (아래) 대웅전. 흥선대원군 필적.

10) 사리의 영이함—통도사사적기

첨례 공양 시에 다섯 가지 향기가 나고, 인연에 따라 사리가 나타나고 사라지며, 첨례 시에 폭풍이 이는 등 그 길흉을 알지 못하게 하고, 사악한 자에게는 고약한 냄새로 그 자를 광란케 하며, 오색의 광명이 발하기도 하며, 변신사리가 무수히 나타나기도 하고, 한 쌍의 푸른 달팽이가 출몰하고, 날짐승이 사리탑 주변에 시끄럽게 울거나 배설을 하지 않는 등의 8가지 영이함을 기록하고 있다.

11) 산령각

산령각은 우리 민족의 토속신앙인 산신을 모시는 전각이다. 토속신인 산신이 불교에 수용되어 호법신중이 되었으며, 조선 중기 이후 사찰에 산신각, 산중탱화로 등장한다. 산신은 호랑이와 동일시되며 호랑이와 산신을 함께 그린 것이 산신 탕화이다.

산신에는 남자 산신, 여자 산신이 있다. 여자 산신은 트레머리에 땃기를 들었으며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호랑이를 타거나 기대고 손에는 불로초를 들고 있다. 남자 산신은 백발 수염에 머리는 벗겨지고, 하얀 눈썹을 휘날리며 부채나 불로초를 들고 있다. 통도사 산신각은 남자 산신이 옆에 호랑이를 거느리고 있다.



통도사 산령각

12) 봉발탑

봉발탑은 용화전 앞에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사와 발우를 받들어 둔 곳이라 하여 일명 의발탑이라고도 한다. 고려 시대 조성된 석조물로 추정되며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사각의 지대석 위에 원형의 하대석 측면에 두 줄의 테를 두르고 윗면에 연꽃 모양의 연화대를 놓았다. 그 위에 부등형 8각형 간석(竿石)을 세우고 그 위에 연화대를 놓고 연화대 위에 육중한 뚜껑을 갖춘 발우를 올려 놓았다.

봉발탑을 용화전 앞에 모신 것은 미래에 미륵부처님과 관련이 깊다. 석가세존 입멸 후 오십육억 칠천만 년 뒤에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해서 일체중생을 제도하실 미륵 부처님께 석가세존의 신표⁶⁾인 발우를 전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도 부처님 제자 마하가섭이 인도의 계족산에서 멸진정에 들어 미륵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상징한다.



6) 신표(信標). 뒷날에 보고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주고받는 물건.

13) 솟을삼문

통도사 솟을삼문⁷⁾은 조선 시대 왕실의 원찰이었고,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문의 양식을 보여 준다. 원래 조선 시대 솟을삼문은 왕궁과 서원 및 향교의 정문 형식으로 유교식 건축물이다. 송유억불 정책으로 불교를 탄압하던 조선 시대에 불교가 왕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옛 기록에 의하면 1930년대까지 솟을삼문부터 해장보각 주위를 둘러쌓은 담장이 있었다. 또한 통도사가 왕실의 원찰이었던 사실로 보아 통도사 솟을삼문은 왕실과 관련이 있으며,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문이 양식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개산조당 편액이 있고, 이 솟을삼문을 통과하면 뒤편의 해장보각에 자장율사의 모사본 진영을 봉안하고 있다.



7) 솟을대문(솟을大門)의 일종. 가마를 타고 출입할 수 있도록 좌우 행랑보다 높게 설치한 대문. 가운데 칸을 높여 만든 것을 솟을삼문이라고 한다.

14) 호혈석(虎血石)—호압석(虎壓石)

예로부터 통도사에는 호혈(호랑이 혈액)이 있어 호환을 많이 당했다고 한다.

옛날 한때, 통도사에 어느 젊은 학승이 통도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산내 암자 백운암에서 장차 유명한 강백이 되기 위해 홀로 열심히 경전을 공부하고 있었다. 어느 해 봄 저녁 무렵 나물을 캐러 왔던 신평마을 처녀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백운암의 불빛을 보고 찾아왔다. 하룻밤을 청하는 처녀를 보고 스님은 난처해했지만 호랑이가 출몰하는 어두운 밤길에 처녀를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스님은 단칸방 아랫목을 처녀에게 내어 주고 자신은 윗목에 정좌한 채 밤새 경전을 읽었다.

처녀는 낭랑한 스님의 독경 소리에 반했고, 젊은 학승에게 그만 이룰 수 없는 연정을 품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처녀는 상사의 병이 들었고 병이 깊어져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처녀는 그 마음의 지체 있는 집 안의 무남독녀였는데 처녀 부모는 이유도 모른 채 딸이 죽어 가는 모습을 보고 애간장을 태웠다. 죽음에 이르러 처녀는 부모에게 죽기 전 그 스님을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된 딸의 부모는 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백운암으로 달려갔다. 젊은 학승에게 매달리며 딸을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대강백이 되기로 결심한 스님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고, 처녀는 상사병으로 죽었다.

몇 해가 흘렀고 그 스님은 마침내 통도사 대강백이 되었고 통도사 감로당에

취임을 하게 되었다. 그날 밤 취임식 축하연이 본사 감로당에서 베풀어졌다. 그때 갑자기 사나운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호랑이 한 마리가 감로당 지붕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울부짖었다. 대중들이 여기에 호랑이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여겨 각자 자신의 가사를 벗어 호랑이를 향해 하나씩 밖으로 던졌다. 그러자 호랑이는 가사를 하나씩 받아 멀리 던져 버렸다. 마지막으로 그 강백 스님이 자신의 가사를 던지자 호랑이가 그 가사를 갈기갈기 찢으면 더욱 사납게 울부짖었다. 강백 스님은 호랑이와 자신이 인연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대중들에게 합장하고 감로당 밖으로 나가자 호랑이가 그 강백 스님을 물고 사라졌다.

다음날, 날이 밝자 사중의 대중들이 강백을 찾아온 산을 헤매다가 백운암 주변 바위 위에 이미 숨겨 있는 강백 스님을 찾았다. 그런데 강백 스님의 몸은 온전했는데 강백 스님의 남근(男根)만이 없었다. 호랑이가 그것만 물고 간 것이었다.

이후 통도사에는 호랑이 기운을 누르기 위해 큼직한 붉은 반석(盤石)을 도량 내 두 곳에 놓았는데 하나는 상로전 응진전 바로 옆에 있고, 하나는 하로전 극락보전 북쪽에 두었다. 호혈석은 붉은색을 띠는데, 이는 호랑이 피를 묻혀서 붉은색을 띠는다고 한다. 호환을 막기 위해 방편으로 도량 제일 아래 영역 하로전과 제일 위 영역인 상로전에 방편으로 호혈석을 두어 호환을 막고자 했던 것이라고 전한다. 호혈석을 둔 이후 통도사에는 더 이상 호환이 없었다고 한다. 덧붙여 강백 스님이 죽었던 백운암 주변 그 바위도 붉은색을 띠고 있어 호혈석이라 부른다고 한다.



(위) 하로전 극락보전 뒤쪽에 있는 호혈석 / (아래) 상로전 응진전에 있는 호혈석

16) 자장암의 금와보살

통도사의 자장암은 통도사 창건주인 자장율사가 수도하던 곳이다. 이곳 자장암엔 금와보살을 빼놓을 수 없다. 법당 뒤쪽에 있는 바위벽에는 자장이 신통력으로 뚫었다는 엄지손가락 크기의 작은 구멍이 있다. 자장이 수도하고 있을 때 2마리의 개구리가 곁에서 떠나지 않자, 신통력으로 바위에 구멍을 뚫어 개구리들이 들어가게 해서 살게 했다고 한다. 그 뒤 1쌍의 금개구리로, 또는 벌과 나비로 변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금와보살은 불심이 깊은 사람에게 보인다고 한다.



(위) 자장율사가 뚫었다는 구멍 / (아래) 자장암의 법당 뒤쪽 바위벽 / 가끔씩 나타난다는 금와보살



지장암에서 바라본 풍경

도움 주신 분들



김상철 통도아트센터장
신평마을운동, 당산제 등 자문

김상걸 선생님
신평마을 이야기 자문

신충길 선생님
신평마을의 전반적인 이야기
들의 자문

참고문헌

- 국립현충원
- 한국의 당산 당제
- 경남일보

신평마을이야기

발행일

2023.11.10

발행처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농촌활성화팀)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2길 33-1, 3F

연락처 055-382-9196~7

제작

호밀밭

연구집필

문건호 호밀밭PD

김가경 소설가

디자인

임소영

도움 주신 분들

김상철 통도아트센터 사무국장

김상걸 전 양산시의회 의장

신충길 선생님

마을 이장님

통도사로 향하는 신평중앙길에는
장승처럼 상서로운 기운을 품은 채
신평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가 서 있다.



9 791168 261495
ISBN 979-11-6826-149-5